

www.boriSudongSan.or.kr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57년 / 2013(통원 14호)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봄

문수방 이택겸

봄에는 꽃이 핍니다.

봄에는 곤충들이 깨어납니다.

보리수동산을 지키는 짱이.

짱이의 긴 하품~

봄은 오늘입니다.





2013년 통권14호 초록연꽃

햇살마루... 봄(문수방 이택겸)	02
산중일기... 초심으로(원장 승욱스님)	04
발자취... 연혁, 아동 및 직원현황	05
처음처럼... 참, 좋은 인연입니다.(정서윤)	06
체험보고서... ㄱ. 눈썰매장을 다녀와서(보현방 김대원)	07
ㄴ. 경남 반성수목원을 다녀와서(미륵방 박지우)	08
ㄷ. 마다가스카 3 “이번엔 서커스다.” (보현방 박지환)	09
교육프로그램 ... ㄱ. 권리교육(안양원 이명진)	10
ㄴ. 보건교육(문수방 석동인)	11
ㄷ. 폭력예방교육(안양원 김영천)	12
ㄹ. 성교육(미륵방 최민서)	13
봉사활동수기 ... 처음처럼(이정화)	14
해외문화탐방기 1 ... 일본에서의 기억(보현방 김광석)	16
초록연시 ... 20회 장원 이청란, 유승영, 차상 김철영	20
21회 장원 박의렬, 박경주, 박준상	21
22회 장원 박준상, 이택겸, 차상 양진우	22
23회 장원 석원진, 양진우, 차상 김형택	23
24회 장원 김종수, 김형택, 차상 김희태	24
체험보고서 ... ㄱ. 고성공룡엑스포를 다녀와서(보현방 이상민)	25
ㄴ. 여수세계엑스포를 다녀와서(보현방 박의렬)	26
해외문화탐방기 2 ... 중국탐방을 다녀와서(지장방 김효림)	27
요리실습프로그램 ... “내가 요리왕” 프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영양사 김은정)	30
체험보고서 ... ㄱ. 놀이레크레이션 웃음치료를 하고나서(안양원 이수현)	31
ㄴ. 국토순례를 다녀와서(안양원 김백천)	32
ㄷ. 제주도 국토순례 (선재관 석원진)	34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 사랑하는 동생들에게(안양원 배희승)	37
해외연수기 ... 거대한 나라, 중국을 다녀와서(보현방 강은미)	38
건강상식 ... 보약이 되는 여름과일(영양사 김은정)	42
보리수의 이모저모	43
후원해주는 분들	47
나눔의 행복	56
도움주시신 분들 ... 후원배너	58
예결산보고	62
사랑의 후원보내기	63

법인 10년, 초심으로

보리수동산 원장 승욱스님



의욕과 열정 하나로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를 설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초등학교이던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혹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 명절날 선물꾸러미를 들고 찾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시간의 나이테가 아이들의 모습 속에 커켜이 쌓여감을 느끼게 됩니다.

2000년 6월 보리수동산 전신인 개천초등학교 좌편분교를 임시로 빌려 내려왔을 때, 문을 닫은지 오래된 학교는 그야말로 흥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허리까지 오는 잡초들이 듬성듬성 자라있고 건물은 낡고 오래되어 칙칙하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련암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황새고개를 넘어 틈틈이 폐교에 자란 잡초를 뽑고 교실을 쓸고 오래된 사택과 교실에 자리를 펴고 눌러 앉아, 적막했던 운동장은 공을 차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합성으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8월 법인 설립을 허가받고, 그 해 10월 ‘구’ 좌편분교를 매입, 2003년 1월에 아동복지시설 신고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합법적인 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리수동산에서는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늘 아이들과 의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보리수동산 아이들을 내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꾸준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들을 지낸 막내 준형이가 열 살이 되고, 성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불보살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 석가모니불



보리수 연혁 · 아동현황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 시작(주지 승욱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향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설립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보리수동산)
2003년 07월 20일		카페 1주년 행사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학 협동 협약식
2003년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해넘이 밤)
2004년 07월 18일		카페 2주년 행사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4년 12월 31일		송년의 밤 행사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7월 17일		카페 3주년 행사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200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행사(꿈+희망=행복)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자초등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 4주년&가을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증축 중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행사
2009년 09월 16일		경남FC&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 축구 클럽 창단식
2009년 12월 26일		송년의 밤 행사
2010년 10월 09일		사랑나눔 음악회
2010년 12월 18일		송년축제
2011년 10월 09일		2011 꿈이 무르익는 가을 축제 한마당
2011년 10월 22일~23일		2011 보리수동산&JTS “꿈, 희망 캠프”
2012년 01월 28일		the큰병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12년 12월 15일		송년축제 “겨울 속에 핀 초록 연꽃”

참 좋은
연연입니다.

아동현황

연령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5	5	14	19	3		46
여	1	3	3	6	·		13
계	6	8	17	25	3		59

직원현황

직책 구분	원 장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상담지도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 담요원	계
남	1	1		4					1	7
여			1	10	1	1	1	1		15
계	1	1	1	14	1	1	1	1	1	22

“참, 좋은 인연입니다.”

글 정서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어색했던 이 말들이 일상처럼 적응된 지금 벌써 보리수동산에 들어 온지 한 달이 되었다.

첫 직장이라는 떨림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다부진 각오 속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이 가득 하기도 하였다. 그런 걱정도 잠시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먼저 다가와 나에게 대한 관심을 표현 하는 아이들 덕분에 나도 거부감 없이 다가 갈수 있었다. 더불어 친절 하신 선생님들 덕분에 힘차게 한 달을 달려온 것 같다.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은 나에게 행운이 너무 빨리 찾아 왔다. 이 행운이 나에게 너무 과분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해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돌아해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다. 힘들어 질 때쯤 날 보고 먼저 안부를 물어 보는 아이들,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괜찮다며 가르쳐 주는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의 착한마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아이들 앞에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서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많았다.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고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한 동안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한다. 이런 아이들을 나는 더욱더 많은 사랑으로 보살 피워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나지만 아이들의 함께 더불어 나 자신 또한 더 많이 성장해 나가야겠다.

하루하루 아름답고 예쁜 추억들만 쌓고, 항상 웃음꽃을 피우며 아이들과 보리수동산이라는 이름아래 함께 나아가리라 다짐한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 말처럼 이 좋은 인연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훗날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보고 웃을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여야겠다.



눈썰매장을 다녀와서

글 보현방 김대원



오늘은 작은사랑회 봉사자분들과 부곡하와이에 있는 눈썰매장을 가는 날이다. 우리는 8시에 모여 안전교육을 받고나서 눈썰매장으로 출발을 했다. 다같이 버스를 타고 들뜬 마음으로 눈썰매장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놀다보니 어느새 부곡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제일 먼저 눈썰매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했다. 복잡한 틈을 뚫고 썰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도넛츠 같이 생긴 썰매를 하나씩 챙겨 올라갔다. 아이들과 썰매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내려오면서 뒤로 뒤집어질 뻔도 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와 있었다.

썰매를 다 타고 하늘자전거를 타러 갔다. 대웅이 형이랑 같이 하늘자전거를 탔는데 대웅이 형이 너무 빠르게 페달을 밟아서 앞에 있는 사람처럼 부딪혔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하늘자전거를 다 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한 후 시간이 늦을까봐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선생님한테 더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하여 점심을 먹으로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고 목욕을 한 후 버스를 타고 보리수로 향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작은사랑회 봉사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경남반성수목원을 다녀와서

글 미륵방 박지우



나눔의 향기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경남반성수목원'에 가기로 한 날이다. 보리수동산에서 수목원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 일찍 동산에서 출발하였다. 나는 다른 수목원에 많이 가보아서 그런지 별 기대감 없이 수목원에 갔다. 도착하고 나눔의 향기 자원봉사자 분들과 우리들은 한명씩 짝을 지었다. 나와 짝을 이룬 분은 김경호 봉사자님이다. 봉사님과 짝이 되어 반갑게 인사를 드리니 기뻐하시며 반겨주셨다. 나는 짝이 된 김경호 봉사자님과 수목원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먼저 나무박물관을 들어가서 나무로 만든 십이간지를 보았다. 봉사자님은 자신의 띠의 맞는 동물나무 옆에서 사진을 찍으셨다. 나도 봉사자님을 따라 내 띠의 동물 나무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나무박물관에는 그뿐만 아니라 나무의 종류와 모양, 놀이기구 등이 있었다. 나무박물관은 다 구경한 후 야외로 나와서 열대식물원과 연못, 수상정자를 둘러보았고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았다. 나는 동물 중에 독수리와 원숭이를 좋아해서 독수리와 원숭이를 보기 위해 열심히 찾아 다녔다. 나는 독수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독수리를 보았는데 독수리가 가만히 있어서 조금 이상해 보였다. 내가 생각했던 독수리와는 달라서 조금 신기했다. 봉사자님께서 TV에서 보는 독수리는 노란부리독수리라고 하여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으며 내가 본 것은 검은머리독수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독수리라고 하셨다. 독수리를 본 후 원숭이를 보러 갔다. 이 원숭이도 내가 평소에 봐왔던 원숭이와는 다르게 귀엽게 생겨서 더욱 정감이 갔다. 봉사자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침팬지라고 하시며 설명해주셨다.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가까이서 보니 신기하였다. 동물원을 둘러본 후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휴식시간동안 축구를 하었는데 나는 축구에는 자신이 있어서 당당하게 봉사자님과 볼 트래핑을 하지도 제 안했다. 시합을 했는데 역시나 내 예상대로 봉사자님은 57개, 나는 82개로 내가 이겼다. 봉사자님도 생각보다 잘하셔서 약간 당황했다. 짧았던 휴식시간도 끝이 나고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나눔의 향기에서 준비해 주신 점심은 도시락과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었다. 나는 도시락은 먹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만 계속 먹었다. 편식하지 말라는 봉사자님의 말씀에 따라 도시락도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다 먹은 후 레크레이션 놀이를 했다. 색종이 옮기기, 풍선 터트리기 등 재밌는 게임도 하고 상품으로 과자도 받았다. 그리고 봉사자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봉사자님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놀고 웃다보니 금새 하루가 저물었다. 별 기대 없이 수목원에 갔는데 기대이상으로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나눔의 향기 봉사자분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 같다. 나눔의 향기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마다가스카 3 “이번엔 서커스다.”

글 보현방 박지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6월 9일 토요일에 작은사랑 나들이로 영화를 보았다. 초등학교생들과 중학교생들이 작은사랑회 봉사자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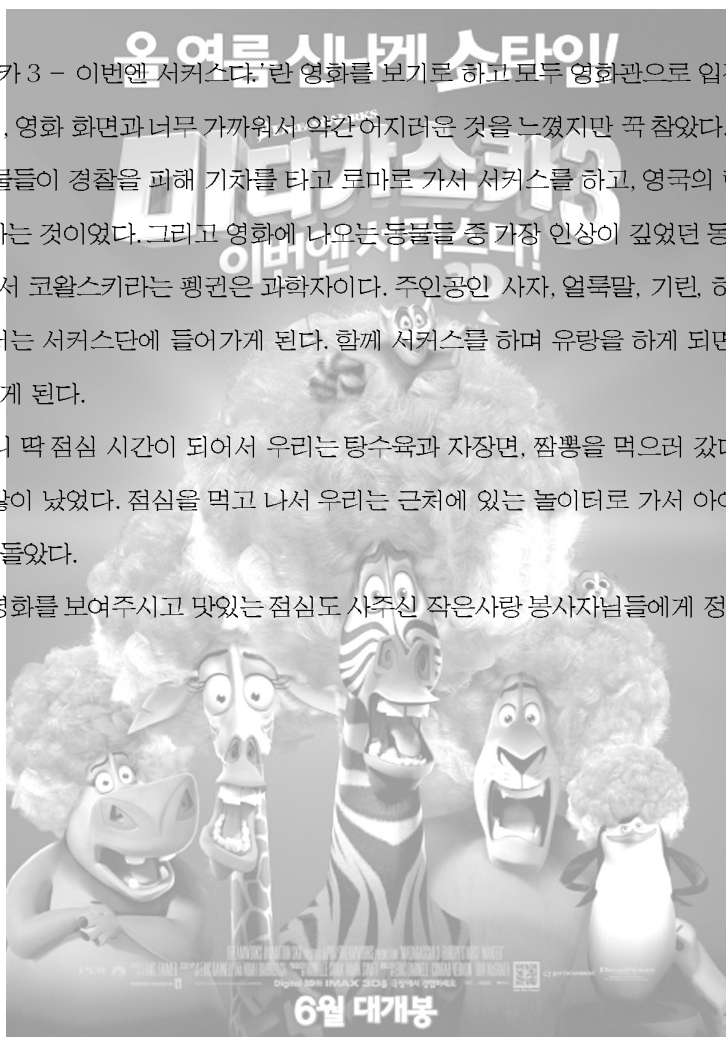
나와 김신, 택겸이는 문수방 선생님 차를 타고 갔다. 다른 아이들은 스타렉스, 보현방 선생님의 차를 타고 갔다. 영화관까지 가는 데만 4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진주 엠비씨네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2층 매표소에서 모여 우리가 볼 영화를 정하였다.

11시에 ‘마다가스카 3 - 이번엔 서커스다.’란 영화를 보기로 하고 모두 영화관으로 입장을 하였다. 나는 C-2석에 앉았는데, 영화 화면과 너무 가까워서 약간 어지러운 것을 느꼈지만 꼭 참았다.

영화의 내용은 동물들이 경찰을 피해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가서 서커스를 하고,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을 다니며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동물은 바로 펭귄 네 마리였다. 그 중에서 코왈스키라는 펭귄은 과학자이다. 주인공인 사자, 얼룩말, 기린, 하마는 펭귄들을 찾기 위해 유럽을 가서는 서커스단에 들어가게 된다. 함께 서커스를 하며 유랑을 하게 되면서 서커스단의 다른 동물들과 친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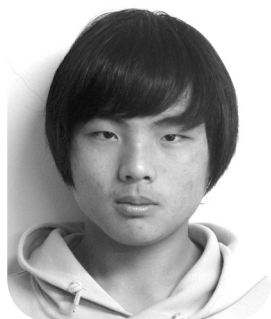
영화가 끝나고 나니 딱 점심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탕수육과 자장면, 짬뽕을 먹으러 갔다. 난 짬뽕을 먹었는데 매워서 땀이 많이 났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근처에 있는 놀이터로 가서 아이들과 놀다가 2시에 보리수동산으로 돌아왔다.

우리에게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신 작은사랑 봉사자님들에게 정말 고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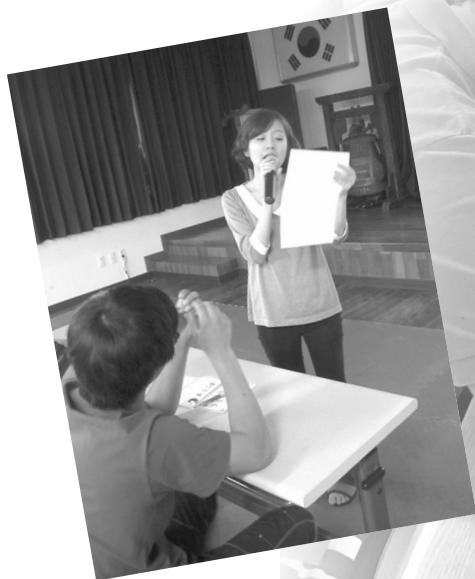


아동인권교육을 받고 나서

글 안양원 이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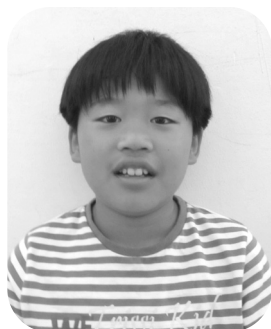


강당으로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의자와 책상이 세팅되어 있었고 미모의 선생님께서 앉아 계셨다. 스크린 화면에는 권리교육이라는 빔이 비추고 있었다. 그제야 '아! 권리교육 받는 날이구나' 하고 알았다. 도가니 예고편으로 시작한 권리교육은 딱 한 시간 소요되었다. 도가니 예고편을 보는데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상대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4가지의 권리와 유엔아동인권선언서에서 내세운 세 가지의 중심 내용을 배웠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4가지 권리로 정했다. 내용 중에서도 본 두 가지 동영상에서 느낀 점이 많았다. 우리가 평소애 차던 축구공을 우리보다 훨씬 어린아이들이 손수 만든다는 것을 알았을 땐 가슴이 너무 아팠고 축구 공을 함부로 차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다 만들어진 공을 가지고 놀 즐만 알았지 공이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공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100명 마을이라는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처한 상황이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100명이 사는 마을로 따져 보면 20% 안에 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교육과 의미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 동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리며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보건교육을 받고 나서

글 문수방 석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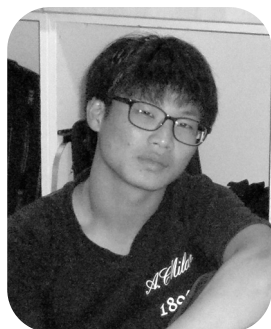


보건교육 내용 중에 술, 담배, 성교육, 건강, 손 씻기, 양치질에 관한 내용들을 배웠다. 먼저 음주교육을 했는데 알코올이 1%라도 들어가는 것이면 술이라고 하셨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과 같은 암에 걸려 확률이 높아져 죽을 수도 있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큰 사고사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많이 접할 수 있어 얼마나 위험한지 행동인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술은 우리에게 독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두 번째로 흡연예방 교육을 배웠는데 담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있고 고무로 이루어진 타르 등이 있으며 담배는 먹을 수 없는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셨다. 담배를 많이 피울 경우 후두암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끼우고 생활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담배는 내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세 번째로 성교육은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고 잡아가면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주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썬치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해바라기 아동 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알려 주셨다. 마지막으로 건강, 손 씻기,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치아는 다 썩어 버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비만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골고루 먹고 양치질과 손 씻기를 잘하지 않아 잦은 질병을 앓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육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과 발을 먼저 씻고 동생들이나 형들에게 모범이 되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나서

글 안양원 김영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교육을 듣기 전에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또 언제 받을 기회가 생길지 몰라 잘 들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며 이때까지 들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오늘 복습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들었다. 일단 학교폭력에 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게 되었는데 진짜로 내가 생각해도 학교폭력이 이렇게 까지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학교폭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듣다 보니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 까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일진이니 짱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전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던지 이 유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등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런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아... 진짜로 학교폭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무서운 범죄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다가 우울증까지 생겨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교폭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폭력은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무섭기도 했다. 앞으로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면서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성교육을 받고나서

글 미륵방 최민서



오후 1시에 고성 청소년문화의 집에 성교육을 들으러 가게 되었다. 문화의 집에 가서 3층에 있는 청소년 종합센터에 들어가 책을 읽다가 탁틴 내일이란 버스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버스 안은 화려했고 모서리 부분에 올챙이 같은 게 많이 있었다. 선생님께서 그것은 정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믿겨지지 않았다. 성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잘 못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사춘기에 남자와 여자 몸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들었다. 여자와 남자가 2차 성징을 하면서 신체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성인이 되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아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해서 만들어지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 뱃속은 좁은데 어떻게 10달을 살지 라는 의문도 생겼었다. 설명을 다 들은 뒤 쪽에 있는 탁틴 일생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서 빨간 불이 들어오는 부분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 해주셨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성폭력은 몸 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 마지막으로 동영상도 보고 임신한 엄마의 배를 만져 아기가 배에서 움직이는 태동을 느껴보기도 했다. 태동은 아기가 엄마 배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 느껴보는 것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했다. 또 아기를 안고 그 아기 인형이 자기라 생각하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계기로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다 듣고 나온 뒤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리수 동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들었던 교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처럼

글 이정화



봉사란 단어는 항상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도 만들고 때론 나를 울리기도 하며 때론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아주 마술같은 존재인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나에게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고 느끼게 해 준 설우회라는 모임을 소개하고자한다. 이 모임은 관내 관공서에 근무하는 미혼 남녀 10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봉사단체이다. 매월 둘째, 넷째주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집은 소년가장의 집이다. 병어리 엄마와 병

든 아버지, 고령인 할머니와 살았으나 부모님과 할머니는 지병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만 단둘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두메산골의 초가집이었다. 제일 아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방안의 장판과 벽지였다. 우리들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회비로 모았다.이번에 아이들의 방을 수리해 주기로 했다. 일부 회원들이 장판과 벽지를 사러간 사이 우리들은 낡은 장판과 벽지를 뜯어내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였다.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도 우린 기뻐다. 왜냐면 고운 색깔의 벽지와 장판에서 편히 쉴 이 어린 아이들 때문이었다. 가스렌지에 밀가루 풀을 끓여가며 한 장 한 장 완성되어가는 예쁜 방을 보면서 모두가 힘을 내었다. 그 후로 우린 정기적으로 아이들 집을 방문하여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하였다. 이 일이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면서 관내 처음으로 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면사무소와 군이 연계하여 조립식 집을 지어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10명의 회원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이었던 것 같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바른 인성의 청년으로 자라 동생은 장가를 가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형은 현재 미혼으로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 매년 명절 때면 잊지 않고 인사를 하러오곤 한다. 참으로 가슴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00년 6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 개천봉사회 봉사원이 되어 펼쳐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젊은 사람보다는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홀로 사시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우리 개천면 적십자봉사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18명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 한명 한명이 성심을 다해 관내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관내행사시 찾집행사, 노인시설 복육봉사,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경노당 청소 및 음식 대접 등 다양한 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자식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로이 사시는 97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봉사자들이 할머니 집을 방문하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지 모른다. 이불을 팽팽줄에 넣어 소독시키고, 방과 부엌을 말끔히 정리하고 마당의 잡초들을 뽑느라 구슬땀을 흘릴 때면 할머니는 꼬부랑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우리들에게 시원한 물을 내다 주신다. 그 물맛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꿀맛이었다. 햇살이 잘 드는 마루에 걸터앉아 할머니의 긴 손, 발톱을 깎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소리 없이 웃으시는 귀여운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 거린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될 일이지만 할머니의 죽음은 나를 더 슬프고 가슴 아프게 한다. 할머니와 같은 분이 우리 관내에는 많이 사신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 국가의 지원금이나 봉사자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을 볼 때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고 늘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히 하게 된다.

우리 관내에는 홀로 사는 장애인도 몇 분 계신다. 그 분들 중 몇 년 전에 홀로 이사온 어르신 맥을 봉사 활동 나갔을 때 사람 오는 것을 상당히 낮설어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들의 변함없는 방문에 따옴의 문을 조금씩 여셨다. 우리는 집안청소도 구석구석 깨끗이 해 드리고, 냇가의 맑은 물에 이불빨래도 받을 방망이 삼아 깨끗이 세탁해 드리곤 한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많이 외롭고 힘든 세상살이에 따옴의 문을 닫은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요즘 들어 우리 주위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 우리 이웃에도 4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현재 아들 둘을 둔 애기엄마가 있다. 늘 웃는 얼굴에 화장 끼 없는 모습이 나를 더 다가서게 만든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어 많이도 힘들어 하더니 이제 우리말도 제법 잘 하는 한국 아줌마가 되어간다. 늘 옆에서 다정한 이모로 때론 엄마로 다가가기 위해 나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 모습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울리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아기가 있다. 올 3월 18일 우리 보리수동산에는 생후 일주일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아가 입소했다. 인근 사찰 종무소 옆 마루에 발견되어 스님께서 우리 보리수동산에 데려 온 것이다. 발견 당시 아이 옆에는 이불과 기저귀, 분유, 젖병, 내의4벌과 함께 “아이에 대해 조건 없이 포기하며, 스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편지가 남겨져 있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겹싸개에 싸여져 있는 영아의 배꼽에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를 안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 왔다. 정성을 다해 건강히 잘 키워야 되겠다는 다짐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메아리처럼 뱅뱅 돌았다.

우리 원장님께서 작명가를 통해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셨는데 석준영이라는 멋진 이름이다. 6월 23일에는 원장님이하 전체 선생님들과 봉사자님이 함께 참여하여 준영이의 백일잔치도 열었다. 어떤 봉사자님은 자신의 모유를 열려와서 현재까지 우리 준영이가 맛있게 먹고 건강하고 순한 아기로 자라나가고 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감사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에 지금의 우리 준영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남을 도운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가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절실히 느낀다. 비록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비번일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을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모든 이들이 있기에 내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난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봉사로 인해 내가 더 행복해지기에 말이다.

-일본에서의 기억-

글 보현방 김광석



첫 재날

2012년 11월 8일 드디어 한·일 교류캠프를 가게 되었다. 원래 그 전일정이 여름 때 제주도에서 교류를 하기로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계속 연기 되다가 11월 8일 일본으로 캠프를 가는 것으로 확정 되었다. 나는 이번 기회로 첫 해외 여행을 가게 되었다. 첫 해외여행이기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후 3시 30분까지 영천이형, 승규선생님과 경남종합복지관에 모였다. 우리 시설 말고 다른 보육원 친구들도 있었는데 모두 모르는 친구들이었다.

나는 일단 일본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 가하고 먼저 걱정부터 되었다.

전원 모인 후 버스를 타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였다.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나는 HAMYU호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는 시모노세키행이고 일본에서 제작된 배였다. 배 안에는 매점, 자판기 등 역시 자판기 강국답게 여러 종류의 자판기가 나열되어 있었다. 배에 탑승하여 호실을 배정받고 우리 모두 모여 4박 5일 동안 함께 할 친구들과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엄청 많이 어색하고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다. 그 어색함에 나는 어떻게 친해질까 하고 많이 걱정되었다. 배를 타고 일본을 갈 때 배가 약간씩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를 처음 타보는 것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배가 좌, 우로 흔들리는 것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친구들을 보니 몇 명은 배 멀미 때문에 먼저 자고 유일하게 나하고 같이 흔들림을 재미있게 즐기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친구와 배의 흔들림을 즐기면서 22시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우리 별처 일본에 도착해있었다.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건물들이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건물들의 높이가 낮았다.

6시에 배에서 아침을 먹고 8시까지 내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밖을 내다보니 일본의 풍경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한시라도 빨리 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8시가 되니 배에서 내리긴 하였으나 제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입국심사였다. 어제 작성했던 일본 출입국 카드와 세관신고서를 여



권과 같이 내고 지문과 사진을 한 장씩고 나서 여권을 다시 돌려받았다. 나는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시모노세키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가니 온통 일본어로 되어있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다.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우리를 기다리던 분이 계셨다. 호후해북원 원장님, 국장님, 그리고 선생님 두 분께서 우릴 환영해 주셨다. 버스를 타고 도쿠치 청소년 자연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버스를 타기 전에 주위를 보니 우리나라와 달리 반대방향으로 차가 움직이고 있었다.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고 버스 출입문은 왼쪽에 있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도안 우리가 도로위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듯 한 기분이 들었다. 해외를 와보니 다른 점이 있어 헛갈렸지만 엄청난 기대감이 나를 금방 적응시켰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많이 다를 것이 없었다. 주위에 나무가 많고 중간 중간 간판이 있고 아직은 일본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없는 한 나라라는 생각만 들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휴게소에 가게 되었다. 휴게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점, 화장실이 있고 그 매점에서 나메코라는 게임 캐릭터를 볼 수 있었는데 일본에 와서 나메코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 싶었던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조았다.

드디어 도쿠치 청소년 자연의 집에 도착하였다. 도쿠치 청소년 자연의 집은 엄청 넓었다. 한 하나의 산하나의 규모의 도쿠치 청소년 자연의 집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련회와 똑같은 곳인데 규모는 엄청난 차이였다.

도쿠치 청소년 자연의 집에서 생활 규칙과 호실을 배정받고 우린 1,2조로 나누어져 도쿠치 어드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이면서 이 계기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니 이젠 어색함보다는 친근감이 더 들 수 있던 시간이었다. 도쿠치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끝 난 후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놀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일본 친구들이 없어서 아쉬웠다. 도쿠치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저녁을 먹고 나니 일본 친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그 후 대강당에서 다시 모여 일본친구들과 또 다른 도쿠치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밧줄을 타고 건너가서 좁은 공간에 10명의 친구들이 10초 동안 버티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첫 번째로 밧줄타기를 하였는데 뒤에 있던 친구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나는 3번이나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놀이로 일본 친구들과 친해지고 놀 수 있어서 좋았다. 어드벤처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하루일과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탕이 하나씩 만들어져있고 그 탕에서 피로를 풀고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너무 좋았다.



둘째 날

아침에 기상을 하고 점호를 한 뒤 일본체조를 배웠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던 체조를 따라하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체조와 다를 게 없었다. 국민체조와 비슷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아침체조를 한 후 아침을 먹어서 인지 밥맛이 꿀맛이었다.

오늘의 일정 중 중요한 일정인 해

복원 전 원장님의 추모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해서 우린 교복을 입고 추모식을 참여 하게 되었다. 추모식은 우리나라와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중 30분 동안 염불을 하고 30분 동안은 법회를 하였는데 사실 국경일 때 티비를 시청하면서 추모식에 참여할 땐 고개를 숙이고 묵념만 해보았는데 1시간동안 추모식을 해보니 일본과 한국이 가깝지만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모식을 마치고 우린 게스트 하우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일본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보니 반찬은 엄청 간단하게 나왔고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먹지 못할 정도의 맛은 아니었기에 이런 것도 문화의 하나이기에 받아들이며 든든히 먹어두기로 하였다.

점심을 먹고 야마구치 시에 위치해 있는 야마구치 현립박물관에 견학을 갔다. 야마구치 현립박물관에 가보니 신기한 것이 많았다.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물, 미술, 고고학 등 완전한 종합 박물관이었다. 설명이 일어로 되어있어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일본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엔 좋았다. 이젠 루리코치 오중탑을 보기로 하였다. 루리코치 오중탑은 고대 대 일본의 전성기 문화를 전승하는 야마구치를 대표하는 사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다보탑 보다 몇 배는 더 큰 탑이었다. 탑 주위에는 산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옆으로는 절하나가 있었다. 우리나라 절은 평지에서 보았을 때 지붕이 옆으로 일자로 되어있는데 일본은 삼각형으로 되어있었다.

두 번째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유다온천에 도착하였는데 유다온천에는 귀여운 여우 한 마리의 돌석상이 있었다. 유다온천의 유래는 신기하였다. 옛날 여우가 온천물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유다온천을 만들었다고 한다. 유다온천에 족욕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였다. 혹시나 온천물이 많이 뜨거워서 발에 화상은 입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

이젠 저녁시간이다. 호후해복원에서 많은 일본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메뉴는 일본식 샤브샤브였다. 카레 맛이 나는 육수에 고기, 야채, 버섯을 넣어서 익혀먹는 것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맛치고는 먹을 만 하였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일본인 친구들과 교감을 가진 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의 숙소인 호후시 사이클 터미널로 갔다. 이날 밤 일본 친구들과 서로 명함과 선물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는 선물을
받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튿날의 하루도 마무리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셋째 날

우리는 아침공양을 하
고 숙소에서 나와 호후천
만국에 갔다. 일본에서 가
장 오래된 신사이며 학문
의 신인 스가와라노미 치
자네, 아메노호 히토미코
토, 다케히나도리노미 코
트, 노미노스쿠네를 신으



로 모시고 있는 신사였다. 농업의 신이었다가 학문의 신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8000명의 신이 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간 신사는 일본전체에서 3번째로 방문객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호후천만국 안에는 방송암이라는 다도실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 방문을 하여서 많이 불편했지만 이번 한·일 교류캠프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호후천만국을 다 둘러보고 우린 일본의 전통마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일본의 전통마차는 녹차가루로 만드는 차로 많이 쓴 차였는데 많이 써서 조그마한 호빵과 함께 먹으니 쓴맛과 단맛이 나의 혀를 감싸고 있었다. 전통마차체험이 끝이 나고 벌써 점심시간이었다. 일본친구들과 별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슬퍼졌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점심은 고기뷔페에서 장식하였다. 일본에도 고기뷔페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전통마차를 마시고 남은 쓴맛이 고기의 고소함으로 말끔히 없애주었다.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일본친구들과 헤어지고 배에 승선하였다. 그런데 그날 운이 안좋겠도 배가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뱃멀미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았고 나머지 뱃멀미로 속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배 멀리보다는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조금 아쉬웠다. 4박 4일 동안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약간 신사적인 분위기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은 배울만한 점이었고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일본에 다녀오니 일본에 대한 관심이 예전 보다 더 많아 졌다

또 언제 같지는 모르지만 어른이 되어서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틈틈이 일본어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일본 친구들과 일본어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여야겠다.

4박 5일 동안 좋은 추억과 일본에 대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꼭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제20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0회 초등장원

선재관 이청란

은행나무

빨간 단풍 손님이 왔어요.
바리새라고 오셨어요.
노란 은행 손님이 왔어요.
강물타고 오셨어요.
후~ 벌써 시간이 다갔네요.
손님들 가실 시간..
가을도 가시나보요.



20회 초등장원2

미륵방 유승영

은행나무

은행나무
아무 말 없이 나에게
가을이 왔단 걸 알려준다.

은행나무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내가 크고 있던 걸 알려준다.

잎을 툭툭 떨어지며 나에게
계절이 지나간다는 걸 알려주는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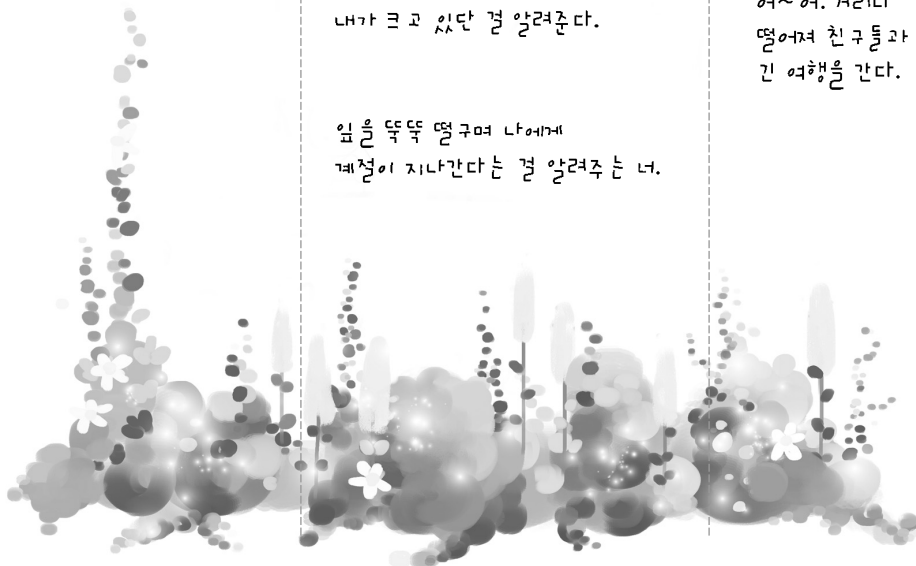
20회 초등차상

문수방 김철영

은행나무

누군가 툭. 툭. 쳐서
하나, 둘 여행을 가고
남은 은행잎은
너무 외로워.

갑자기 붉어온 광풍에
어~어. 거리다
떨어져 친구들과
긴 여행을 간다.



제21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1회 장원
문수방 박의렬

떡국

오랜만에 먹어보는 떡국이라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떡국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바로 고향이에요.
떡국 안의 떡들이 엉겨 붙은 것이
바로 가족들 같아요.

그래서 이 떡국을 보면서
한 해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래요.



21회 장원2
선재관 박경주

세배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 얼굴을 내미시고는
표정이 변하신다.

"뜨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하고 놀라신다.

우리 세배바탕 보다는
돈모으기 시합을 하는 듯
많은 사람들이 웅기쭈기 모여 있다.

우글우글 바글바글
마치 개미 떼가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웅성거리는 것처럼..
모여 있다.



21회 장원3
안양원 박준상

고향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찾아가 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나의 슬픈 고향

고향에 두고 온 나의 흔적들
가슴에 새기고 싶지만
개발되어 사라진
나의 슬픈 추억들

고향이 낯설어 갈 수 없네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네
추억이 사라져 갈 수 없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제22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2회 장원
안양원 박준상

거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쳐 보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을까
본 적도 없는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거울에 비친
내 여동생
어머니를 닮았을까
본 적도 없는 어머니를 떠올려 본다.

그만두고 가장 가족을
그리다 잠이 든다.



22회 장원2
문수방 이택겸

봄

봄에는 꽃이 핍니다.
봄에는 곤충들이 깨어납니다.
보리수 동산을 지키는 짝이.
짝이의 긴 하품~
봄은 오름입니다.



22회 차상
안양원 양진우

거울

가만히 거울을 본다.

내가 모자를 쓰면
거울도 모자를 쓴다.
내가 안경을 쓰면
거울도 안경을 쓴다.

거울은 또 다른 나다.

내가 화가라면
거울도 화가난다.
내가 슬퍼하면
거울도 슬퍼한다.

거울은 나의 내면도 드러난다.

거울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23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3회 장원
선재관 석원진

편지

입으로 하지 못한 말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이
참 많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께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을
편지에 담아봅니다.

친구들에게도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을
편지에 담아 전해봅니다.

입으로 하지 못한 말
참 많습니다.



23회 장원2
안양원 양진우

창문

창문이 있습니다.
창 밖에는
'계절'이라는 그림이 보입니다.

3월, 7월, 10월, 12월 ..

꽃이 피고
비가 오고
단풍이 지고
눈이 내립니다.

자연이라는 미술가의 그림을

우리집에도, 이웃집에서도
걸어듭니다.



23회 차상
안양원 김형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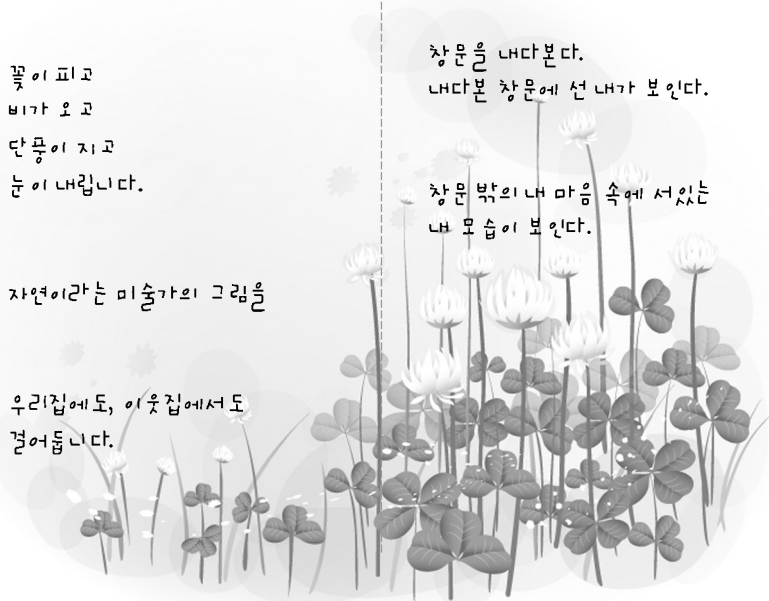
창문

창문을 내다본다.
어둡고 눈서리가 내리고 있다.

동생이 창문을 내다본다.
두툼이 달빛에 비쳐 반짝거린다.

창문을 내다본다.
내다본 창문에 선 내가 보인다.

창문 밖의 내 마음 속에 서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



제24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24회 장원
지장방 김종수

열쇠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리내어 울어 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로등을 보니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열쇠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열쇠는 어머니였습니다.



24회 장원2
안양원 김형택

엽서

길 걸다 눈에 들어온 작은 엽서
집에 돌아와보니 어느새 내 손 안에
있네.

무슨 말을 해볼까 누구에게 보낼까

직접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내 마음
엽서 한 장에 슬며시 써내려가네

어떤 말을 써볼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

감사지도 못한 내 마음 홀로
날려보내네.



24회 차상
지장방 김희태

열쇠

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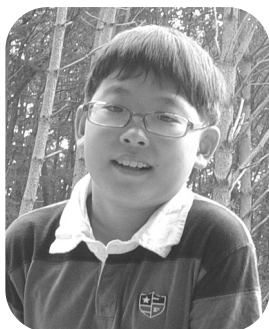
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나도 열쇠처럼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 주고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공룡엑스포를 다녀와서

글 보현방 이상민



우리는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이 깨우다’라는 주제로 하는 제 3회 ‘2012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 다녀왔다. 토요일이라 많은 사람이 오리라 예상하고 일찍 출발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룡엑스포장에 갔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엑스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는 엑스포장에 입장 후 제일 먼저 백일장을 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에서 백일장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나들이 나온 김에 야외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등학생은 주제가 ‘공룡’이었고, 중·고등학생은 ‘봄나들이’였다. 봄이라하기엔 약간 더운 느낌이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시 한편을 완성하였다. 백일장을 다하고 난 후 점심시간

전까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는 행사장 주변 신기한 조형물이나 처음 보는 것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오기 전부터 계획했던 놀이기구인 타가디스코를 타러갔다. 타가디스코는 놀이동산에 있는 탬버린과 같은 것이었다. 빙빙 돌아가다가 툭툭 튀기는 이 기구는 안 떨어지려는 사람과 떨어뜨리려는 조작자의 모습이 재미있는 것이다. 신나게 타가디스코를 타고나서 4D영상을 보러 갔지만 상영시간이 안 맞고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썰수 없이 포기하고 퇴장과 전시관을 구경하였다. 구경을 마치자 오전 자유 시간도 끝이 났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이기로 한 장소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고 또 다른 기대작인 동춘 서커스를 보러갔다. 서커스 단원들이 저마다 색다른 묘기와 장기들을 공연하였고 그 많은 것들 중에 공중묘기와 저글링묘기가 기억에 남았다. 공중묘기는 공중에 줄을 매달고 사람이 그 줄을 잡고 높이 올라가거나 줄과 함께 밑으로 떨어지려는 묘기 등이 보여 졌다. 그때마다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 하였다. 저글링묘기를 하시는 분은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정말 유쾌한 분이셨다. 탁구공을 입에 넣고 ‘박수치쇼잉’하며 말할 땐 나도 웃었다. 그리고 공을 돌려서 공연장에 온 사람들 중 한사람을 골라 손에 올려주어서 직접 돌리게 하는 모습도 부러웠다.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서커스 공연도 끝이 났다. 서커스 공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1시간 넘게 서커스 공연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쉬웠다. 서커스를 다 본 후 남은 시간동안 각자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정말 재미있었던 타가디스코를 또 타러갔다. 타가디스코를 타고 나니 아쉽게 자유 시간이 끝나 버렸다. 타가디스코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보리수 동산으로 돌아왔다. 처음 보는 것들과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것이 많아서 즐거웠던 하루였다. 봄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정말 좋았다.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수세계엑스포를 다녀와서

글 보현방 박의렬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엑스포에 가게 되었다. 지난번에 학교에서 가보았는데 사람도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못 보았던 곳도 많이 구경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오늘 여수엑스포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개천 주민분 들께서 가시는 것인데 우리 보리수등산이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주민분 들께서 우리들에게 여수엑스포 티켓을 양보해주셨다. 나는 우리에게 양보해주신 주민분 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도 커서 개천면에 후원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드디어 여수엑스포를 향해 출발했다. 버스에서 영화도 보고 형들이랑 노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여수엑스포에 도착했다. 여수엑스포에 도착하여 각자 조를 이루어서 간식을 받고 헤어졌다. 우리 조는 지인선선님과 함께 다니게 되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국제관 천장에 있는 디지털영상을 먼저 보러 갔는데,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천장에 있었다. 어떤 바다를 가도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았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다보고 여러 나라 관을 구경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곳은 각 나라의 온도와 기후환경을 재연했고, 각종 문화재를 전시하고 기념품과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많은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었다. 근데 왜 우리나라관은 국제관에 없는 공금했다. 공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밥을 먹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경찰서 앞에 모이기로 했다. 나는 자장면을 먹었는데 증식당에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빨리 나왔다.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사먹어서 그런지 색다른 느낌이었다. 우리는 밥을 다 먹고 경찰서 앞에 있었는데 웬지 죄수가 된 것 같기도 했고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지인선선님을 만나 해양 베스트관으로 가보았는데 볼거리도 많고 바다의 신기한 생물, 기술 등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여기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베스트관을 다 둘러본 후 스카이다워도 구경했다. 걷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바닷가 길에 앉아 바다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해서 좋았다.

모두가 모이기로 한 장소에 우리 조는 일찍 모이기로 하였는데, 나는 혼자 가다가 우리조와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아까 지인선선님의 말을 되새기며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약속장소에 갔다. 거기에는 우리조가 모여 있었다.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8시 30분! 우리는 빅오쇼를 구경했다. 스토리는 안보였지만 물이 춤을 추듯이 흐느적거리고 불은 멋있게 불을 뿜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레이저가 발사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났다. 스토리가 안보여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신기하고 맛있는 공연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공연이 끝이 나고 등산으로 가기위해 나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억지로 뚫고 나가 버스를 탔다. 오늘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특별한 추억이 하나 생긴 것 같다.



중국탐방을 다녀와서

글 지장방 김효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은 날이다. 내가 처음으로 가는 해외이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설레는 기분으로 일어나서 갈 준비를 했다. 동우 선생님, 성환이 형, 나. 이렇게 3명이 보리수에서 대표로 중국탐방을 가게 되었다. 우리 먼저 각 시설에 아동들이 단체로 모이는 장소로 가야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창원 경남종합복지관으로 향했다. 일찍 일어나 피곤했지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설레는 마음에 1시간 동안 말뚱말뚱 눈을 뜨고 있었다. 창원 경남종합복지관에 도착해서 우리는 인원 점검을 했다. 보리수동산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시설 아이들까지 인원을 확인해보니 20명 정도가 됐다.

인원점검을 하고 버스에 탑승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는 아이들이 몇 명 보였다. 작년 국토순례 때 지리산 등정을 하면서 한번씩 봤던 반가운 얼굴이었다.

우리 버스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갔다. 공항에 도착하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정신을 차리느라 바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다른 비행기 탑승구로 향할까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들었다. 기본적인 것들과 비행기에 들고 가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의 스케줄을 간략하게 들었다.

생애 처음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출국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하고 설레었다.

비행기에 타고, 이륙할 때까지 설렘이 멈추지 않았다. 비행기에서의 주의사항과 중국까지 걸리는 시간을 듣고 나니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출발을 했다. 그래도 비행기는 몇 번 타봤기에 그렇게 떨리거나 무섭진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몇 분 뒤 기내식을 먹었다. 중국을 갔다 온 동산 친구들은 기내식이 맛이 없다고 했는데, 내 입에는 정말 맛있었다.

비행기에서 두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어느덧 중국 땅을 볼 수 있었다. 하늘에서 보는 중국 땅은 정말 거대했다.

조금 후에 안내방송이 나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이라 확실하게 다른 나라에 있다는 느낌은 나지 않았지만 입국심사를 받고 가이드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안개가 너무 심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냄새가 심하게 났다. 중국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신기할 정도 안개가 심했는데, 냄새는 중국 특유의 냄새라고 해두면 이해는 하겠지만 앞이 안보일 정도의



안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국의 공업화가 심화되면서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스모그현상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첫 번째 코스로 향했다.



북경에서는 고종(古鐘)박물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대종사와 과거 원명청(元明清) 시기에 시간을 알려 주던 종고루(鍾鼓樓)를 먼저 가보게 되었다. 매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울려 퍼지는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중국에서는 여기서 들을 수가 있다고 했다. 가이드가 말해주길 옛날에는 이곳이 종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한다.

첫 번째 문화탐방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갔다. 중국을 갔다 왔던 아이들이 중국음식이 무척이나 기름져서 먹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다행히 현지식이 아니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은 고기를 먹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약간 아쉬웠던 것이 김치가 한국김치가 아니라 그런지 좀 이상했다. 다시 말하면 약간 싱거웠다. 첫째 날은 중국에 도착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기대가 커서 그런지 크게 감동이 밀려온 것보다는 생각보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대기오염이 심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날이었다.

둘째 날이다.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만리장성을 갔다. 만리장성은 내가 살면서 가고 싶은 top3안에 드는 곳이었는데 상상 속의 만리장성과 실제로 보는 만리장성은 많이 달랐다. 일단 만리장성을 오르는 것부터 달랐는데 왜 만리장성이 왜 7대 불가사의에 끼이는지 알 수 있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바다링 부근의 성벽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은 말 5필과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간선 도로의 기능도 일부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여러 차례 바다링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런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말과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넓게 만들어 놓은 길은 용도에 따라 폭이 달랐다. 특히 능선이 끝나는 지점이나 중앙에는 어김없이 적군을 감시했던 망루와 누각이 세워져 있고,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만리장성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여러 마리의 말들이 동시에 이동하거나 군사들이 10명씩 동시에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이해가 갔지만 100~200m마다 계단이 있어,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가이드의 말에는 어떻게 계단을 자유롭게 다녔는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만리장성에는 망루, 봉화대, 성문이 많지만 바다링 주변에는 특별히 규모가 큰 망루, 봉화대, 성문이 많았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 인데, 바다링 지역에 지어진 망루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컸다. 바다링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머물면서 경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리장성을 둘러보면서 북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만든 만리장성은 인류가 건설한 가장 웅장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비록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건설한 장성이지만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을 주는 유적지라는 생각을 했다.

만리장성을 둘러보고 점심은 현지식으로 먹었는데, 말만 현지식이지만 맛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밥을 먹고 나서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았다. 밥을 먹고 우리는 호텔로 가기 전에 변화가를 들렀다.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삼성 휴대폰을 파는 곳이었다. 이걸 보고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웠다.



중국여행 셋째날! 마지막 여행이다.

자금성을 갔었는데 자금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천안문을 지났다. 처음에 천안문은 그냥 우리나라의 성문과 같이 그저 그렇구나하고 생각했었는데 천안문에 대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천상의 평화의 문'이라는 의미의 천안문(天安門)은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네 개의 주 관문 중 하나이며, 광대한 천안문 광장은 이 문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했다. 이 광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880m, 동쪽에서 서쪽으로 500m의 넓이로 뻗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시 광장이라고 말했다. 천안문의 건축은 1417년 명나라의 자금성 건축의 일부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699년의 개조 작업 때였다고 했다. 20세기까지 천안문 앞의 구역에는 정부 관청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이 지역은 1902년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으로 피해를 입어 비워지게 되었는데, 1950년대 초에 중화문(中華門)을 헐고 그 주변에 형성되었던 좁은 거리들을 없애면서 공지는 더욱 넓어졌다고 했다. 마오쩌둥 시대에 광장 주변에 여러 채의 중요한 건물들이 세워졌으며,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국립 박물관, 마오쩌둥 기념관 등으로, 기념관에는 1976년 사망한 '위대한 키잡이' 마오쩌둥의 방부 처리된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다. 천안문 광장은 그곳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로 유명해졌으며, 심지어 악명 높은 장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천안문 광장에서 저항 시위, 특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시위는 1989년에 정점을 이루어, 결국 당국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시위대를 진압하여 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충돌로 인해 사망한 시위자의 수가 186명이었다고 했다.

그 외 천단공원을 둘러보았는데 자금성을 중심으로 베이징의 남쪽에는 천단, 북쪽에는 지단, 동쪽에는 일단, 서쪽에는 월단이 있어 각각 하늘, 땅, 해, 달에 제사를 지냈다고 했다. 그 중 천단공원은 하늘에 풍년을 빌기 위해 1420년 명대의 영락제가 건설했는데 이 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은 기년전으로 오곡이 풍성하기를 빌던 곳이라고 했다.

어느덧 중국여행의 마지막이 되었다. 아쉬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가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다. 아쉬움이 가장 컸는데 2박 3일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중국여행은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게 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매우 뜻 깊은 여행이었다.



『내가 요리왕』프로그램 실시 후 우리 아이들의 변화

글 영양사 김은정



지금껏 등산에서는 아동들의 자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리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동들이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설거지, 식사배식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요리하는데 있어, 영양사 조리원이 많은 도움을 주다보니 아동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메뉴짜기, 요리하기 등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날 만큼은 아동들이 주방장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를 통하여 요리에 대한 재미와 자기발전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립프로그램『내가 요리왕』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참가아동(9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메뉴 짜기, 시장보기 등을 실시하고 요리실습을 실시하였다. 요리를 하여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실습하면서 서서히 음식 만들기에 재미를 부여하여 자립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 기초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아동평가단의 설문지 형식의 채점을 통하여 참여도 및 음식 맛을 평가하여

【요리왕】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각 조별 아동을 편성하고 프로그램 실시, 각 조별 메뉴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 음식 만드는 방법 등을 조별로 토론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진행하였다.

매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장, 마트를 둘러보며 필요한 재료구입과 물건 고르는 방법 등을 공부하면서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적응 및 각조별 협동심과 자발적인 독립심을 기르고, 직접 식재료를 만져 손질하고 조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 식습관조절도 함께 조절할 수 있었다.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동안 몰랐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동 스스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메뉴를 직접 고르고, 그에 따른 재료의 종류·양을 정하고 조리법을 연구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본인이 조리한 음식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그동안 몰랐던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음식에 대한 소중함도 함께 배워 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울러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아동평가단, 직접 참여한 아동 모두 굉장한 재미와 흥미를 보이며 보다 나은 요리를 해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동평가단의 음식에 대한 냉철한 평가 결과를 보면서 과연 급식팀의 음식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새로운 메뉴 선택에 대한 노력과 음식의 맛, 위생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음식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달라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메뉴 선택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반성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다.



놀이레크레이션 웃음치료를 하고나서

글 안양원 이수현



오늘 10시에 강당에서 놀이레크레이션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다 같이 둥그랗게 앉아서 조를 정하였다. 나는 하마조였다. 조가 정해지고 조별로 모여 게임을 하였다. 먼저 인사를 하고 게임을 시작하였다.

레크레이션 선생님께서 각 조에 미션종이를 주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게임방법을 모두 들은 후 운동장에 나가서 직접해보며 미션을수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조가 제일 먼저 한 게임은 이심전심게임이었다. 눈을 가리고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여 조원들이 모두 같은 몸짓을 하고 있으면 성공하는 게임이었다. 눈을 가리고 몸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니 잘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줄넘기게임을 하였는데, 줄넘기가 계속 걸려서 실패하였다. 실패를 하고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 이동하였다.이동을 할때 각 조에서 정한 동작을 하며 이동을 했다.

다음 게임은 우물증 걸린 사람을 웃기는 게임이었는데 우리 조는 한번만에 웃겨서 쉽게 성공하였다. 다음으로 스피드게임도 쉽게 성공을 하고,마지막 바쁘다바빠도 성공을 하고 강당으로 갔다.강당에서도 게임을 하였는데 신문지게임을 하였다.신문지게임을 끝내고 밥을 먹은 후다시 게임을 시작하였다.

오후에는 놀터 사람들이 공연을 준비해오셨는데 난타연주와 레크레이션에 관한 연극을 보여주었다.마지막으로 수화 공연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하였다.

멋진 공연도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공책 만들기를 하였는데 쉬워보였었지만 안 해보았던 바느질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어려워하니 옆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공책도다 만들고 오늘의일정이 끝이 났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고,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놀터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다.



국토순례를 다녀와서...

글 안양원 김백천



우리가 작년에도 갔듯이 올해도 STX에서 주최하는 국토대장정이라는 캠프를 가게 되었다. 두 번째 국토순례라 그런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아는 친구들도 많아서 좋았다.

다 같이 모이는 집결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받고, 조별로 모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렇게 모여 점심식사를 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걷기 위해 이동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힘들다고 해서 그만큼 체력도 키우고 갔다.

첫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5시간을 걸었는데 걸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걸었다. 그렇게 오후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조별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탁구종목에 참여하였다. 나는 집에서 탁구를 잘 치는 편이라서 내가 출전하게 되었고, 탁구종목에서 1등을 하여 문화상품권 3만원도 받았다. 그걸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즐겁고 신났던 하루가 마무리 되었다.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 2배로 힘들다고 해서 짜증과 걱정이 되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갔던 코스는 같은 코스였지만 작년엔 역방향이었고 이번에는 순방향으로 걸었다. 코스를 걸으면서 작년생각도 나고 산에 좋은 공기기도 마시고 6시간 걸을 것을 3시간 만에 완주하여 빨리 끝이 났다. 일찍 숙소에 도착을 하였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씻은 후 바로 잠이 들었다.

셋째 날에는 지금까지의 피로를 풀기 위해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나는 다른 것은 출전하지 않고 족구종목에 나가 1등을 하였는데 학교선배들한테 배운 것이 쓸모가 있었다. 다른 종목을 구경하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산청 경호강에 레프팅을 하러 갔다. 경호강 레프팅은 우리 보리수동산에서도 여름마다 가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다. 레프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풀고 놀 수 있었다.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다른 시설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다른 시설 선생님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숙소에 도착해 내일 지리산 등반을 하기 위해 몇가지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찍 잠이 들었다. 다음날은 아침일찍 일어나 준비를 끝내고 버스로 지리산 등산로 입구인 증산리로 이동하였다.



우리 보리수등산에서도 겨울마다 산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 유명한 산은 전부다 타봤는데 지리산만큼은 가보지 못해서 진짜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기대도 컸다.

근데 지리산은 다른 산과 달리 정상까지 가는데 평지도 없었고 오르막밖에 없었다. 산행 중간에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른 산을 다 타보고 이제와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끈기를 가지고 등반을 하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처음 목표지점은 법계사라는 절이었는데 목표지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점심을 먹었다. 배를 채우고 다시 오르는데 다리를 접질려서 앞으로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아쉽고 나 자신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올랐는데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하산을 하게 되었고 하산하면서 계속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집에서라도 지리산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을 내려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도 하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산행에 여학생들도 정상을 다녀왔는데 내가 못가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 날이라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4일간의 일정이 끝이 났다.

다음날은 집에가는 날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 조금 짧은 캠프였다고 생각이 든다. 캠프 폐회식을 하고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미처 못 했던 이야기를 다했다. 그렇게 4박 5일간의 일정이 끝이 났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웠고 우리들을 위해 이런 캠프를 주최해주신 STX 복지재단 관계자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줘서 정말로 감사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 캠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 국토순례

글 선재관 석원진



2012년 8월 16일 / 제주도 탐방 1일째

2012년 8월 16일, 드디어 제주도에 가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며칠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번 제주도 국토순례에 가서는 우리가 직접 텐트도 쳐보고 요리도 해먹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조별 준비물도 챙기고 안전교육도 받았다. 이번 여행을 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다. 16일이 되자 나는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에 하루 종일 저녁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다리던 저녁공양 시간이 되었다. 저녁공양 후 우리는 단체티를 갈아입고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출정식을 하고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삼천포로 향했다. 삼천포에 도착하여 내리니 오랜만에 맡는 바다냄새가 내 코 끝을 스쳤다. 우리는 각 조끼리 모여 다시한번 교육을 받은 후 각 조별로 탑승표를 지급받고 배에 올랐다. 배에 올라 각자의 방으로 가서 짐을 푼 후 휴식을 취했다. 배를 오랜만에 타보아서 그런지 신기할 뿐이었다.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배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첫날 밤은 이렇게 저물어 갔다.



2012년 8월 17일 / 제주도 탐방 2일째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눈을 떴는데 배는 아직 제주도를 향해 가고 있었고 도착 예정시간은 7시였다. 기상 후 세면,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 금새 7시가 되어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우리가 묵게 될 야영장이었다. 야영장에 도착하여 조끼리 모여 등산에서 교육받은 대로 힘을 합쳐 텐트를 설치하고 짐을 정리한 후 본격적

인 제주도 탐방이 시작되었다. 먼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들레길 7코스로 갔다. 처음에는 평평한 평지에 별로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름이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점 힘들어졌다. 가는 도중 길을 잘못 들어 나뭇가지가 많은 험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 상처도 많이 났지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며 7코스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 하였다. 다음으로 10코스를 걸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10코스는 취소가 되고 우리는 해수욕을 하러 갔다. 우리는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속에서 물장난도 하며 신나게 놀았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놀다보니 벌써 야영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샤워장에서 깨끗이 샤워를 한 후 다시 야영장으로 돌아갔다. 야영장으로 돌아와 우리가 직접 저녁 준비를 하였다. 오늘의 저녁메뉴는 어묵국, 오리양념 주불럭이었다. 재료를 지급 받고 불의 양, 양념의 양을 조절하여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하여서 저녁을 먹었다. 매일 보살님들이 해주시는 밥만 먹다가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 색다른 기분이었고 내가 했다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졌고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저녁을 다 먹고 세면을 한 후 처음으로 텐트에서 잠을 자보는 우리들은 텐트 안이 너무나 신기하였다. 우리는 들뜬 나머지 잠이 오질 않아 텐트 안에서 밤새 이야기를 하며 잠이 들었다.



2012년 8월 18일 / 제주도 탐방 3일째

제주도로 온지 벌써 3일째이다. 3일째는 제주도 대표산인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후 한라산 등반을 위해 가방에 비상식량들로 가득 채우고 등반을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출발하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한라산으로

향했다. 한라산에 도착하여 먼저 단체사진을 찍고 여학생들을 선두로 한라산 등반이 시작되었다. 나는 산을 오르기 전 ‘오를 수 있다.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라산에 올랐다. 한라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 별로 가파르지 않아 오르기 쉬웠지만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많이 미끄러워서 조금 위험했다. 처음에 오를 때는 힘든 것이 잘 올라가다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뒤로 처지게 되었다. 뒤로 처진 나를 선생님들과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어 다시 힘을 내어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산을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축 처져 갈 때쯤 우리 앞에 대피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피소가 우리 눈에 보이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걸었다. 열심히 올라 대피소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대피소에서 파는 컵라면을 점심으로 사먹었다. 평소 자주 먹는 컵라면이지만 오늘 먹는 이 컵라면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먹어 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산에 올랐다. 다리가 아팠지만 아픔을 참고 정상까지 올라 사진을 찍었다. 내가 정상까지 올랐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정상에 올라 백록담을 보았는데 정말로 아름다웠다. 정상에 오르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정상에서 행복감을 만끽한 후 하산하였다. 오를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내려갈 때에는 다리에 힘이 계속 풀려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일췌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산하였다. 하산 후 우린 지친 몸을 이끌고 야영장으로 돌아갔다. 야영장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저녁준비를 하였다. 오늘 저녁도 우리가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저녁을 다먹고 뭉친 근육을 풀기위해 샤워를 하였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

고나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험난했지만 뿌듯한 하루였다. 선생님들,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2012년 8월 19일 / 제주도 탐방 4일째

벌써 제주도 국토순례의 마지막 날의 해가 밝았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짐을 하나씩 정리 하고, 우리가 3일 동안 잠을 잤던 텐트도 우리가 직접 정리하였다. 모든 조가 텐트를 정리하고 나니 야영장이 쓸렁해졌다. 쓸렁해진 야영장을 보고 있으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우리는 약천사를 향해 갔다. 약천사에 도착하였는데 입구부터 아름다운 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큰 기대를 하며 약천사에 들어섰는데 이 절은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었다. 우리는 법당에 들어가 다함께 삼배를 한 후 절을 둘러보았다. 이 절은 배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모두들 이 아름다운 배경에 사진 찍기 바빴다. 나는 이 아름다운 배경을 내 마음에 새겼다. 절 구경이 끝난 후 우리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들레길 8코스에 갔다. 어제 산을 탔던 탓일까 8코스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었다. 어제 오랜 시간 산을 타고 또 들레길을 걸어서인지 종아리가 너무나 아팠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불평 불만없이 들레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힘을내서 8코스 길의 도착점에 도착하였다. 들레길을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일정도 끝이 나고 2시 배를 타고 삼천포로 향하였다. 첫째 날에는 모두들 들뜬 마음에 이야기하느라 바빴는데 오늘은 첫째 날과는 다르게 모두들 피곤함에 잠만 청하였다.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배가 달려 삼천포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보리수로 향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잊지 못할 제주도 국토순례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3박 4일 동안의 긴 일정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온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 나는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품고 꿈나라로 향했다.



애들아~ 행님이다.

글 안양원 배희승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내가 갈 학과를 찾고 있었지. 요새도 그렇듯이 그때도 한창 스마트 티비, 스마트폰 모든 게 스마트해지는 시기였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경쟁에서 밀려 나면 바로 낙오되고... 그 시기에 나는 컴퓨터 공학과라는 과를 전망 있게 보았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컴퓨터의 프로그램, 이것들이 지금은없어서는 안될 시기라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결심!!

난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지. 처음에는 등록금이며 기숙사비며 생활비며...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 일단 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기숙

사비는 청량사 스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리고 남은 게 생활비였는데 가만히 있는 다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이거는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고3 마지막 겨울방학 때 현수막 하고 공통엑스포 외부 디자인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이라는 게 쉬운 건 없더라.

바람 쐬는 부는데 전망대 절벽에 올라가서 이끼를 닦고 100킬로 넘는 철판을 사장님하고 들고 나르고, 매일매일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고 중간에는 진짜 힘들기도 했지.그래도 한 달 꼭 참고 일해서 110만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어. 그 월급으로 동산에 통닭파티도 했었는데... 내가 번 돈으로 통닭을 사서 먹고 있으니까 왠지 뿌듯하더라. 하하 ^^*

드디어 3월 개강 !!! 처음엔 진짜 살 것도 많은데다가 친구들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고 정신없었지. 형들하고도 누나들하고도 친해지고 여자 친구도 사귀었지. 그리고 MT도 가고 축제도 즐겨보고 과팅도 나가보고, 어느 정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니깐 벌써 1학기가 끝이 나더라. 그리고 또 같은 문제에 부딪혔지.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방학이 시작될과 동시에 나는 엘지유 플러스라는 곳에서 폰을 팔았지.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폰을 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리저리 교육받고 보름? 그 정도 지나니까 슬슬 알겠더라고. 그래서 길 가던 사람 붙잡아서 설문조사와 동시에 폰을 팔았지.

한 달에 걸쳐 10대 정도 폰을 팔고 월급을 받았는데 —— 월급이 너무 작은 거야. 한 달 일하고 폰을 열대 나 팔았는데 80만원 이라는 거야. 그리고 후회했지. 좀 더 알아보고 일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 곳을 그만뒀어. 왜냐면 이래서는 생활비를 모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급여가 켜 곳을 찾았고 한 달 조금 못 채우게 일해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지. 그 돈으로 기숙사비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런데 난 놀면서 일하지 않고, 국가 장학금 신청도 하고,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근로 장학생 아르바이트도 신청해가면서 방학을 보냈지. 국가 장학금은 물론 1학기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건데,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받고, 근로장학생도 선발되어서 공강 시간에만 하고, 시급 6000원인 정말 좋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학기를 전액장학생으로 떳떳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

학기 중에 한번 학교에서 PPT로 자기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벌어 내가 쓰고 장학금 받고 집에서 용돈 안 받아 쓰는 게 자랑이 되더라. ^^*

동생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 아르바이트도 보면 별의별 사장들이 다 있고, 학교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기한 사람들이 많더라. 좀 있으면 알겠지만 형이 쪼금 먼저 경험해본 입장에서 집에 선생님들 말이 틀린 게 없더라. 선생님들이 우리를 보면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너희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 매일 하시지 않나? 저 말 말고도 너희들 알잖아? 매일 듣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들... 잔소리 같지만 다 맞는 말이다. 항상 주위에서 챙겨주시는 선생님 말씀 새겨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

큰스님이 거두어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보살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겠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거대한 나라, 중국을 다녀오고 난 뒤...

글 보현방 강은미



중국 해외연수를 아동 인솔로 가게 되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음식이며 문화, 또한 추위에 아동들과 3박 4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께 가는 아동이 경주, 재균, 영주라 이번 여행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드디어 중국을 가는 날, 새벽 일찍 모든 준비를 다하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집결을 하여 여러 시설 참여자와 함께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였다. 처음 보는 아동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 드디어 중국을 가는지 확인하고 실감이 났다.

2시간 30분이라는 길지만 짧은 비행을 하고, 오전 09시 50분에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하였고, 가이드 한성씨와 간단한 미팅을 한 후 본격적으로 북경관광을 시작하였다.

1월 29일

관광을 시작하기 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점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중국음식을 생각하면 기름, 느끼함, 뜨거운 차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길고 긴 여정을 떠나온 우리들을 위해 한식당에서 불고기음식으로 첫 중국에서의 식사가 주어졌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한국 음식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겠지'라는 불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러한 마음을 뒤로한 채 식사를 끝낸 후 본격적으로 중국의 문화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먼저 천안문과 자금성이다.

드디어 천안문 광장에 도착. 중화인민공화국의 냄새가 불쑥 풍기며 중국의 국기인 붉은 바탕에 별이 다섯 개 그려진 오성홍기가 보이고 그 뒤로 모태동 주석의 대형 초상화와 천안문이 보였다. 천안문 광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또 다시 깨닫게 되었다.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있는 시민들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축제 때나 볼 수 있는 현상을 중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구경을 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었다.

천안문을 지나면 오문(午門)이 나오는데 이 문이 바로 자금성의 정문이다. 계속해서 큰문을 통과하게 되고 뜰을 지나고 계단, 궁전을 반복하고, 다시 큰문을 통과하여 뜰을 지나 계단 그리고 궁전. 수없이 반복되는 자금성 내에서 만나는 건축물들은 명, 청 나라 때 500년간 24명의 황제가 살았던 궁궐이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경이 펼쳐졌으며 웅장함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였다.

왕부정거리(먹거리장터)는 우리의 시골 장터를 연상케 하는 온갖 잡화들과 먹을거리로 넘쳐나고 있었다. TV나 사진으로만 구경하던 먹거리를 직접 눈으로 접하고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곳에서 경주는 옥수수, 재균이는 군만두를 먹었는데 모든 음식에는 기름범벅이 되어있었고, 군만두는 만두피만 만두의 모양을 잡고 있었으며 속은 비어 기름을 들고 마시는 느낌을 받아서 먹기에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시설에 친구들은 무서운 전갈을 먹어 봤는데 고소하고 바삭거리며 그다지 먹지 않아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또 언제 중국에 오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도전해볼 걸 하는 후회가 되었다.

왕부정거리의 메스꺼운 냄새와 이별을 하고 유리성 거리로 옮겼다. 이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 거리





인, 북경 화평문에 위치해 있었고, 200년 전인 청대 건륭연간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재균이가 다도세트가 보이는 가게로 들어가 흥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보리수등산 식구 4명에서 같이 흥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850위엔(한화170,000원) 정가의 가격을 부르던 것이 계속 바디랭귀지를 하며 흥정을 마친 결과 400위엔에 다기세트를 구입하게 되어 우리 아동들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1월 30일

부스스한 눈으로 7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기 위해 뷔페로 향하였다. 정말 중국음식은 향도 강하고 나의 입맛에 맞지 않아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중국에서의 여행 중 가장 힘들다는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만리장성과 이화원, 그 넓다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구경하는 날이다.

높디높은 만리장성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네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이야 기해도 될 정도로 계단이 높았고 가팔랐다. 우리 재균, 영주, 경주는 해마다 산행을 다녀서 그런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여서 많이 오르진 못하였지만 아마 만리장성을 모두 걸어 보려면 오늘 하루는 고사하고 몇 개월 동안 오르내려야 모두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길고 높았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목록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의 웅장하고 역시 중국의 역사에는 작고 섬세함보다 크고 웅장한 모습을 많이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달에서 관측 가능한 유일한 인공건축물이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 유적이라고 한다. 점심은 우리 입맛에 맞는 풍나물과 된장국이어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 저녁때까지의 양을 먹으며 폭식을 하는 나와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폭풍흡입을 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북경 서북부에 위치한 커다란 정원이자 궁궐인 이화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화원은 서태후의 별장으로 면적은 2.9km²인데 3/4이 큰밍 호라는 호수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호수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힘만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호수라고 하였다. 여기서 파넌 흙은 호수 옆에 60m 높이의 만수

산을 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니 두 눈이 휘둥그레 졌다.

이화원을 지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올림픽 주경기장을 둘러보고 왔다. 2002년에 열린 월드컵경기 때 봤던 우리나라의 주경기장과 별 다를 건 없었다. 지금은 주경기장에서의 경기는 없지만 2008년 이후 관광객이 늘어 연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았고 연을 날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1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시설이동들과 우리 원내아동들이 친해지는 시간도 생겨서 좋았기도 하다. 특히 마산 인애의 집 아동들과 많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의 감흥은 없었지만 아동들 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여유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강추위와 싸우며 이어서 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차(茶)를 시음해보기로 하였다. 바로 다도체험이다. 4가지 종류의 차를 대접해주셨는데 고감로, 자스민, 동방미인, 보이차였다. 자스민, 보이차를 제외하고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시음을 해보니 고감로는 약같이 쓴맛이 있었다. 우리 아동 중에서는 영주가 누나를 준다며 거금 30,000원을 주고 동방미인을 구입하였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추위를 많이 떨다가 차를 마시니 차맛이 더 좋았고, 원산지에서 시음을 해보니 차의 효능을 10배로 더 느끼고 온 듯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천계로 걸음을 옮겼다. 세무천계는 THE PLACE라 불리며 북경의 잉빈국도 동쪽에 위치한 쇼핑거리이다. 맛사지샵, 의류, 악세서리 등을 쇼핑 할 수 있고, 명품샵을 볼 수 있으며 레이저쇼를 보듯 커다란 전광판이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쇼핑물들 중에 가장 눈에 익은 간판이 보였다. 바로 PARIS BAGUETTE. 우리나라 제과점, 파리바게트를 번 중국 땅에서 본 것이다. 간판도 그대로, 종류도 한국과 같았다.



숙소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재균, 영주, 경주와 담소를 나누며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한 빵을 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이 마치고 경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1월 31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날씨체크를 먼저 하였다. 다행히 눈발이 날리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 오늘도 혹독한 바람과 싸워야 될 듯하였다.

간단히 소식을 마친 후 심찰 해로 떠났다. 심찰 해는 전해, 후해와 서해 및 그 주변지역의 1467헥타르의 범위를 가리킴으로 주변풍경이 수려하고 운치가있으며 북경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낮에는 역사체험을 하고 밤에는 야경과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중국의 고전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하지만 다른 일정관계로 아름다운 야경을 보지 못해 아쉬웠고, 조금 더 심찰 해의 분위기에 취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다.

이번엔 중국 중심인 북경 수도 박물관을 관람하기로 하였다. 도착하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규모가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 정도로 웅장했고 사람 또한 많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06부터 새로 오픈을 하여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전엔 낡은 옛 건물이었지만, 새로 지은 박물관은 현대적 건축물에 전통적인 미를 가미한 듯 보였다. 수도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과 자료 등을 전시



관람하는 곳이고 이 밖에도 그때그때 다른 여러 가지의 이벤트전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젠 기다리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마지막 저녁식사가 그런지 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불고기메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만찬을 만끽하며 마지막 밤을 즐기며 호텔로 돌아왔



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오늘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 집을 챙기고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2월 1일

중국에서 마지막이자 그리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중국 향신료의 냄새가 그리워질 것 같은 마지막 여행의 첫 장소는 짬통시장이었다. 사실 일정에 없었던 장소였는데 노키아 한 마음 어울림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여 관람하게 되었다. 물론 중국은

짬통의 천국이라 온 사방이 짬통 천지이지만 오늘 간 곳은 가방, 신발, 옷 등 없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전문 짬통 상가로 규모도 컸으며, 다양한 명품메이커가 즐비하고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세계 사람들이 모두 짬통시장에서 모임이라도 하는 듯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딱 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명품들 중 가장 유명한 상표의 지갑을 사고, 민소매를 사며 흥정도 해보고, 바디랭귀지도 해가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 다양한 제품을 구경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물건을 구입해보고 중국어를 조금씩 사용해봄으로 정말 이곳이 중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인 북경 798예술거리로 옮겼다. 뉴욕에 소호(예술가들의 거리)가 있다면 중국 베이징에는 798예술거리가 있다. 다양한 예술작품이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 규모 또한 상당히 정해진 시간으로는 모든 작품을 구경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다. 3박 4일 동안 고생해주신 가이드선생님에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가이드선생님 또한 4일 동안 본인들을 믿고 따라준 우리 식구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를 할 땐 웬지 가슴속 깊이 뭉클함이 전해지면서 더 많은 중국의 문화유산들을 신경 써서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계속 남았다. 하지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시설 형, 동생을 알게 됨으로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니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3박 4일의 여행이 끝이 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이제서야 실감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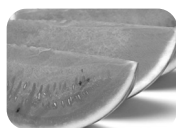
아쉽지만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재균, 영주, 경주를 태우고 원내로 복귀하였다. 아이들도 4일간의 일정이 피곤하였는지 차안에서 잠을 청하고 늦은 시간 원내에 도착하여 쓰러지듯 잠을 청하였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기억이 가슴속 추억의 방에 기억되어 두고두고 꺼내 볼 수 있는 나만의 친구가 되었다.

보약이 되는 '여름과일'



글 영양사 김은정



▶수박

90% 이상이 수분으로 갈증 해소와 해 열에 좋다. 단맛을 내는 과당과 포도당도 다량 함유돼 피로 회복에 좋다. 특히 수박의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성분은 암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트룰린 성분은 이뇨작용을 활발히 만들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다. 시트룰린은 수박씨에 많이 함유돼 있어 삶아서 차로 마셔보자.



▶포도

포도 씨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심장질환과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안토시아닌은 피로해소에 좋은데, 특히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 밖에 포도에는 펙틴, 타닌 등이 풍부해 장운동 증진 효과가 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하다.



▶참외

수박과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이 90% 가까이 돼 체내 노폐물 배출에 좋다. 또한 당분 흡수가 빨라 저혈당·탈수 증상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이밖에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매실

신맛이 너무 강해 대부분 장아찌나 음료로 가공해 먹는다.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구연산이 많고, 식이 섬유인 펙틴도 풍부하다. 매실은 산도가 높아 위장에서 살균 작용을 하는 덕분에 식중독 예방에 좋다. 일본인이 생선회를 먹을 때 매실장아찌(우메보시)를 함께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숭아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있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킬뿐더러 니코틴 등 담배의 독 제거에 좋다.

식이섬유도 풍부해 변비를 해소하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자두

말려 먹으면 더 좋다. 말릴수록 비타민 A·B·E 등이 많아지기 때문. 말린 자두에는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안토시아닌은 물론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 칼슘, 철분이 많아 골다공증 뿐 아니라 빈혈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나 · 향 봉사자들과 반성수목원에 가서 아이들과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한편 "까악~도망가자>_<"



12월 송년축제가 열렸다. 우리 예쁜 시은어와
다솜이 멋진 춤 기대할까-



송년축제로 우리 시후도 춤 연습을 많이 했어
요, 시후 춤추는 거 너무 이쁘죠! ♥♥



두근두근 공룡엑스포로 출발~ 가서 공연도 보고 맛있는
김밥도 먹고 사진도 많이 많이 찍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여수 엑스포! 그래도 저녁까지 구경하
고 공연도 보고 돌아왔어요.



부곡하와이 얼음축제 구경가요~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모
양들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사랑 그리고 행복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파드 퀴즈도 한판~ 동천에 뒤에서 가르쳐 주면
안돼!!!



통도원 타지에서 회전목마도 타고 하늘 그네도 타고
신나게 놀았으니 오늘은 일찍 자자^^



1월1일 새해가 밝았어요, 산 정상에서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받고 왔습니다.



산정에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풍경에 반하고 래프팅을 하면서 또 한 번 반하고 돌아왔어요, 아쉬워 아쉬워



동산의 막둥이 석준영의 돌잔치가 있는 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준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우리 준영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



2012년 8월 6일부터 4일까지의 지리산 국토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멋지게 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개천초등학교 운동회에 우리 제제도 참여 했어요^^백팀이 겨라 청팀이 겨라!!



5월 5일은 어린이 날! 손에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무대에서 내 끼를 다 보여주고 왔어요.



2012년 11월 22일 다문화 가정행사가 있는 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의 자랑거리인 풍물을 선보였어요.



보리수 백일장에서 장원을 수상한 승영이와 청란이*^^ "내 작품이 정도면 상받을 만하지?"





나 · 향에서 봉사활동을 오신 분들과 예쁜 곰돌이 볼펜과 꽃 볼펜을 만들었어요.



안양원에서 문화활동으로 창원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책도 사고영화도 보고 왔습니다.



내가 요리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꼭 요리 하나를 배우고 말겠어!!



경남중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한마음 어울림 마당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풍물공연을 하고 장학금도 받아 왔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전에 한 컷^____^ 형들이 못타는 동생들에게 인라인스케이트도 가르쳐주고 멋진 형들이에요.



3월에 걸쳐서 김장을 했어요, 김장하는 마지막 날 새로 담근 김치와 수육, 두부, 떡국을 너무 맛있게 먹는 아이들~



천연화장품과 천연비누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천연화장품으로 나도 피부미남 미녀가 돼야지~



조물조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선물할 거예요.





베스킨라벤스 펙크카가 방문을 했어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내 입안으로 냉큼 들어오네요!^^



앗!! 첼루쇼 공연 보러간다, 공연이 끝날때까지 웃음이 끊어질 않은정말 재미있었던 첼루쇼~ 역시 보러 오길잘했어><



설날을 맞이해 정성들여 준비 한 차례 상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2012년 8월 16일부터 3일간 제주도 국토순례를 다녀왔어요, 제주도 울레길을 걸으면서 멋진 제주도를 눈에담아왔어요.



소가야 축제에 참여하여 우리의 공물 솜씨도 보여주고 성도 받아왔지요~



더 큰병원에서 중식봉사로 동선의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고기를 구워 주셨어요,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1월 최상태 장시경 민영인 김수정 고난조 정미순 최성근 환관현 정정숙 김순화 강효상 강옥환 윤복연 조정남 장영수 이경순 이창훈 김현섭 박정숙 김재호 조재영 공인배 이충립 이계숙 이숙이 이용호 손윤기 최홍래 허광도 김주애 대각디앤씨(주) 조재경 임화연 심영란 심규나 김정옥 제낙울 주신옥 김현석 안규철 구미자 김순점 명정식 임영연 김진영 정귀남 박치훈 윤정에 홍정숙 김순희 김성호 강갑순 김순화 (주)동명특수강 노주현 대각디앤씨(주) 박국원 김말순 정지숙 강문봉 이두래 김인수 백장흠 김혜숙 김옥순 왕한석 배경조 정정자 윤석근 양유경 윤상일 최연익 강필환 온도석 김태형 명곡목재 원찬섭 이상태 김보열 이춘달 황종관 이재동 김석연 원혜정 홍은정 하정자 치마저고리 제성호 강형성 장인옥 이상근 정영숙 허혜자 윤정자 김남인 김용호 LIG 김수현 황순자 사천페차장 한학조 류석열 최인미 김용진 이미영 윤정수 권종영 김점식 이무제 장형선 김수동 서양순 정숙향 강순자 김명순 이연식 장원주 최재섭 이희연 황희석 김순권 차기훈 사천페차장 조점이 556 43 1224 박귀은 김인호 최연경 진재분 김점식 박종근 이수미 조민주 남태석 청호건설(주) 이미영 윤정향 방이호 문갑래 최영희 이미경 강쌍범 이수미 호전종합건설 황정숙 이항룡 이상근 서도순 김소연 이순복 성명숙 한선희 주동강 이용진 박재홍 이영자 김무립 김연순 남정우 박정숙 변재범 강대균 정창민 이영미 팽정옥 한은주 문경련 이현숙 박종식 이영수 최인선 진순옥 박선자 박종문 이상백 박진아 김재룡 배상림 성우근 하부영 성양원 오유민 신창환 정의순 제금자 김문기 광진중 황기석 LIG 이항래 양미모 김정재 김보열 전부근 윤원준 이상흠 전경도 김승선 김종관 남정원 김옥화 박은정 장영주 박보영 홍순화 강정덕 양채심 이용성 (유)한국산업 정중숙 김향숙 정정순 고난조 김민호 전역수 김설영 박향진 김종선 김오수 최은경 김만식 조성진 이창식 박종태 조필준2 김선숙 공혜원 공혜원 최경녀 김시달 이승미 조필준 강영숙 박미영 권현옥 조원익 정숙자 박현기 박현기 이효석 유상우 김현주 조원익 안호순3 조형규2 조성진 서진호 박우진 김의민 김의민 백금옥 김화숙 윤현식 홍세표 문상필 최숙자 안운호 권옥순 윤정숙 이재정 이재정 이복기 맹길재 이태현 양수미 임박순 이영숙 박우찬 박경자 김민자 김경현 김경현 김영재 한명근 이윤봉 이우종 백상호 이호길 강성진 정용훈 김순찬 이혜정 김애숙 윤라미 김필성 가출순 정성종 안미경 박정현 구나운 이지선 김희정 이승진 이봉자 김해원 윤현순 우영숙 김희정 최영숙 노영도 허미라 구영숙 이민자 황진두 김주희 김순애 심은숙 최유리 김태현 김갑연 김양현 한상근 법장사 김무립 김민중 우태영 주경선 임상보 최문정 박태순

2월 이충립 서양순 양유경 김용진 이영수 이충립 이상백 권현옥 임박순 양수미 이연식 강옥환 문경련 허혜자 윤정수 남정우 박향진 전경도 서영문 김병효 이우종 변재범 김진영 배상림 황종관 최홍래 김순희 김재호 이용성 김진숙 안미경 정성종 홍순화 심영란 김향숙 고난조 장원주 이순복 김태형 이영미 정인숙 최숙자 김희정 김소연 최상태 이영자 이한준 장영수 장영주 김점식 원찬섭 하상개 이영숙 문상필 성양원 배경조 민영인 이경순 이미애 진순옥 하윤숙 김오수 엄영근 이호길 김승선 최연익 김수동 이춘달 정영숙 전역수 김인수 이희연 임영연 박현기 박정현 (유)한국산업 방이호 김재룡 김말순 양미모 김인호 신창환 하정자 강효상 황행자 노영도 최은경 오유민 한은주 이상근 손윤기 김현석 원혜정 이상흠 황순자 강연옥 안운호 김영완 허광도 이상태 조정남 홍정숙 김보열 전부근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공인배 김의민 박우찬 이창식 김현섭 박재홍 이숙이 최인미 김정재 김순점 이미경 장형선 이재정 강성진 황희석 이현숙 차기훈 류석열 김연순 김석연 정의순 한선희 임화연 박현숙 정유섭 이무제 윤정에 조민주 조점이 강문봉 안규철 윤원준 정창민 제성호 이효석 구나운 박종근 정지숙 동아기업 정숙향 이재동 최연경 환관현 박종문 왕한석 이복기 허미라 강쌍범 김수정 황기석 청호건설(주) 윤상일 문갑래 정정숙 제금자 광진중 김영재 권옥순 주동강 강순자 장시경 제낙울 박귀은 이두래 박선자 양채심 박진아 김시달 박경자 홍은정 박국원 정중숙 박치훈 이상근 김성호 강대균 김순화 경남은행 유상우 정용훈 백장흠 장인옥 호전종합건설 윤석근 이미영 김석순 온도석 (주)동명특수강 이용진 김화숙 이지선 대각디앤씨 한학조 윤복연 김정옥 서도순 강정덕 성명숙 명정식 팽정옥 맹길재 구영숙 구미자 이한준 이계숙 이용호 박은정 김명순 강갑순 조재영 김순권 한명근 이윤봉 권종영 남태석 황정숙 이항래 박종식 박정숙 진재분 조재경 이수미2 이승미 홍세표 남정남 명곡목재 정정자 성우근 주신옥 최인선 김용호 광태화 노주현 김현주 김주애 이태호 치마저고리 김보열 김무립 윤정향 이창훈 최영희 김옥순 정인숙 이태현 박정숙 심규나 김옥화 하부영 김설영 윤정자 김민호 정정순 정귀남

3월 최상태 정귀남 강순자 이한준 김현석 김인수 김주애 박종근 김승선 김순애 유상무 강옥환 박국원 윤정에 이경순 김보열 신창환 대각디앤씨(주) 강쌍범 (유)한국산업 김필성 김화숙 정미순 문경련 황종관 강문봉 김정재 원혜정 박향진 주동강 최은경 윤현순 맹길재 심영란 김보열 김연순 윤상일 김석연 강정덕 김점식 이상백 이재현 심은숙 한명근 김진영 배상림 김수정 이재동 안규철 전부근 김태형 이영미 이창식 가출순 이승미 배경조 정정자 김옥화 윤정향 강창순 홍순화 이희연 전경도 조성진2 우영숙 김현주 김수동 장인옥 정정순 박귀은 최연경 김설영 하정자 이용성 조필준 최유리 이태현 차기훈 남태석 이항래 서도순 문갑래 정의순 이상훈 원찬섭 조원익 김태현 이윤봉 조민주 심규나 정영숙 하부영 변재범 윤원준 김혜숙 김문기 정숙자 박태순 홍세표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박재홍 김향숙 성우근 허혜자 이연식 한판현 김종선(제이에스무역) 박진종 김선숙 김갑연 양수미 김재룡 이상근 이현숙 오유민
성양원 정정숙 이미경 임영연 김금자 김양현 이우종 이상태 조정남 김무립 김민호 김소연 김재호 한선희 강효상 박우진 법장사
정성종 한은주 이충립 최인미 방이호 김순희 강갑순 정창민 공인배 윤정숙 김무립 김희정 황기석 이춘달 양유경 김현섭 정미순
백장흠 박종문 임화연 김민자 우태영 문상필 오경옥 류석열 정지숙 허광도 이두래 최영희 제금자 왕한석 김순찬 주경선 임박순
(주)동아기업 이숙이 박종식 김용진 남정우 온도석 양채심 제성호 김희정 임상보 백상호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이미영 김명순 이영수
진재분 김수현 황순자 이민자 최문정 안미경 장시경 조점이 이상근 장영수 이순복 권종영 조재영 박진아 이혜경 박현기 이영숙
정중숙 정숙향 이용호 최연익 진순옥 김용호 (주)동명특수강 김순권 이승진 윤지희 이호길 윤복연 청호건설(주) 양미모 장원주
윤정자 강대균 명정식 이수미2 황진두 강연옥 박정현 이계숙 박치훈 홍정숙 윤정수 이상훈 박정숙 명곡목재 이용진 김애숙 이재정
노영도 한학조 제낙울 손윤기 최홍래 장연주 박선자 김옥순 팽정옥 이봉자 박현숙 안용호 민영인 김정옥 박은정 전여수 최인선
구미자 치마저고리 노주현 윤라미 이효석 박우찬 이영자 윤석근 고난조 이미애 박정숙 홍정은 황희석 박우진 김해원 이복기
강성진 황정숙 서양순 주신옥 김인호 김성호 성명숙 이무제 양승원 이도일 김영재 정유섭 구나운 박경자 구영숙 김순찬 이혜경
김계동 김주희 김순애 심은숙 김시달 최유리 허미라 정용훈 윤정숙 김희정 이승진 김애숙 윤라미 김필성 가출순 김갑연 김태현
권옥순 이지선 김민자 이민자 황진두 이봉자 김해원 윤현순 우영숙 김양현 박태순 한상근 법장사 김무립 김민중 우태영 주경선
임상보 최문정 추상근 김영길

4월 최상태 장인옥 성우근 서도순 박재홍 강대균 한선희 김오수 최은경 이승미 박경자 이계순 한학조 윤정에 주신옥 허혜자
최영희 정창민 임화연 남정남 김현주 정용훈 강옥환 민영인 이용호 박귀은 이영수 진재분 김중선 강효상 김영완 윤현식 이지선
김진영 배상립 정지숙 윤정향 남정우 권종영 김혜숙 공인배 전지원 이태현 구영숙 배경조 문경련 김수정 최홍래 윤정자 정의순
이상훈 왕한석 정인숙 이윤봉 허미라 김순점 서양순 김연순 최연익 최인선 김용호 박종문 박진종 하상개 홍세표 권옥순 김석순
황정숙 정영숙 이미애 이상훈 성명숙 제금자 제성호 조필준2 양수미 맹길재 이상태 김향숙 최인미 오유민 장연주 김주애 양채심
황순자 조원익 이우종 한명근 김수동 류석열 황종관 김민호 성양원 박선자 하윤숙 박진아 조성진 정성종 김순선 차기훈 이춘달
김석순 김인호 이연식 박정숙 김순화 이용진 권현옥 김희정 이창식 조민주 조정남 이상근 전여수 김소연 구미자 조재영 김순권
정숙자 문상필 김문기 김재룡 이숙이 이미영 김석연 김순희 홍은정 (주)동명특수강 이수미2 서영문 임박순 원찬섭 한은주 이상근
제낙울 김보열 김인수 윤원준 명정식 최효심 김만식 김병호 하정자 황기석 박치훈 강순자 김정재 원혜정 강정덕 김옥순 조건영
김선숙 백상호 이미경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박종식 방이호 이영자 대각디앤씨 명곡목재 박미영 김금자 안미경 강갑순 오경옥
김정옥 이경순 허광도 변재범 김재호 김수현 조형규 정병하 최숙자 백장흠 (주)동아기업 윤석근 고난조 안규철 이순복 김순점
치마저고리 안호순 박현기 이영숙 이두래 장시경 조점이 홍정숙 김현섭 진순옥 박향진 황희석 박미영 강연옥 이호길 김성호
정중숙 정숙향 이한준 김명순 신창환 정정숙 이무제 조건영 이재정 박정현 윤상일 윤복연 청호건설(주) 손윤기 강창순 전부근
이충립 박종근 안호순 이효석 노영도 김용진 이계숙 이항래 양미모 윤정수 정미순 김순화 강장범 조형규 이복기 안용호 장영수
김보열 정정순 하부영 장원주 홍순화 하윤숙 주동강 공남이 김영재 박우찬 양유경 정귀남 김무립 박은정 문갑래 김설영 김태형
이상백 박미영2 김시달 강성진 정정자 박국원 김옥화 강문봉 김현석 한판현 김점식 이영미 안호순 유상우 정유섭 심구나 남태식
이현숙 이재동 최연경 박정숙 이희연 이용성 안호순 김화숙 구나운

5월 최상태 장인옥 이현숙 방이호 안규철 정의순 이계순 박종근 김영완 김순애 이효석 강옥환 한학조 김옥화 강문봉 문갑래
김설영 박옥립 강장범 남정남 김필성 이복기 김진영 남태식 성우근 김용진 최연경 홍순화 김태형 주동강 조성진 윤현순 김시달
배경조 황정숙 신동순 윤상일 이두래 변재범 김점식 이한준 조원익 심은숙 유상우 이계순 서양순 양유경 김현섭 김성호 정미순
이희연 이상백 조필준2 가순출 김화숙 이상태 배상립 윤정에 허광도 이영수 신창환 하정자 김문기 이창식 우영숙 맹길재 김수동
김향숙 정지숙 이재동 이창훈 윤원준 김혜숙 이영미 권현옥 최유리 한명근 윤복연 문경련 이용호 강창순 장연주 전부근 이상훈
이용성 장홍점 김태현 이승미 김재룡 이항룡 최인미 김명순 남정우 정정숙 이미경 원찬섭 정숙자 박태순 윤현식 박재홍 민영인
정영숙 박종식 윤정자 김재호 한선희 김오수 이태호 김갑연 이태현 한은주 이춘달 김연순 윤정수 성양원 백장흠 정창민 박진종
김금자 김양현 이윤봉 차기훈 류석열 황종관 장원주 박정숙 박선자 박종문 노주현 김선숙 한상근 홍세표 조민주 이숙이 이영자
윤정향 최인선 김주애 제금자 임영연 김영환 법장사 양수미 황기석 조정남 이미영 서도순 김소연 김용호 양채심 강효상 윤정숙
김무립 이우종 (주)동아기업 이상근 이상근 최홍래 김순점 최영희 김종선 공인배 김민자 김민중 정성종 호전종합건설 이충립 강순자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최연익 이연식 권종영 김순화 임화연 김순찬 우태영 김희정 정중숙 조점이 하부영 박귀은 김순희 진재분 조재영 왕한석 김희정 주경선 문상필 오경옥 정숙향 이한준 김현석 김인수 강대균 (주)동명특수강 제성호 이민자 임상보 임박순 이계숙 청호건설(주) 양미모 김인호 원혜정 성명숙 명정식 이용진 이혜경 최문정 백상호 장시경 김말순 고난조 전역수 강창순 구미자 광진중 팽정옥 이승진 추상근 안미경 박국원 김정옥 오유민 이미애 장영수 강갑순 김옥순 김순권 황진두 김영길 최숙자 정귀남 윤석근 이경순 강정덕 김종관 박정숙 명곡목재 이수미2 김계동 박현기 이영숙 심규나 박지훈 손윤기 김남인 박재윤 홍은정 치마저고리 박우진 김애숙 항행자 박정현 정정자 김수정 김민호 김석연 한판현 허혜자 이무제 정인숙 이봉자 강연옥 노영도 김보열 이향래 홍정숙 김보열 이순복 박향진 황희석 설종열 남정에 윤라미 이재정 안웅호 박우찬 정정순 박은정 김정재 진순옥 김석순 김수현 한복남4 김해원 박현숙 박우찬 강성진 정유섭 구나운 허미라 권옥순 박경자 정용훈 이지선 구영순

6월 최상태 김보열 정정순 이한준 이영수 김설영 (주)동명특수강 김영완 정숙자 김무립 양수미 강옥환 남태석 성우근 윤정향 성양원 서진호 명정식 박우진 정인숙 우태영 이우중 김진영 정정자 박지훈 강문봉 이두래 허혜자 조재영 김승선 윤정숙 주경선 정상중 배정조 장인옥 김정옥 윤상일 김순희 정의순 명곡목재 최운경 김민자 임상보 김희정 이상희 서양순 김연순 이재동 김석연 윤원준 김옥순 이창식 김순찬 최문정 문상필 대각다엔씨(주) 황정숙 김옥화 강창순 장연주 이영자 치마저고리 이재현 김희정 김영길 임박순 이상태 문경련 황종관 박귀은 박정숙 정정숙 이무제 조필준2 이민자 박현기 백상호 제나올 배상립 이현숙 서도순 최인선 대각다엔씨(주) 황희석 조성진 이혜경 항행자 안미경 김수동 장시경 최인미 방이호 윤정자 전부근 박종근 조원익 황진두 윤지희 이영숙 김재룡 민영인 윤석근 오유민 김보열 김재호 강쌍범 배말순 김계동 강연옥 이호길 박재홍 김향숙 김수정 김민호 이창훈 하윤숙 주동강 공남이 김애숙 이재정 박정현 한은주 이병철 윤정에 김현섭 안규철 김태형 이영미 조형규 이봉자 박현숙 노영도 차기훈 이숙이 이용호 허광도 김인수 김점식 이상백 박미영 윤라미 이효석 안웅호 조민주 이충립 이상근 김병순 김성호 하정자 김문기 안호순 김해원 이복기 박우찬 (주)동아기업 김말순 이미영 윤정수 원혜정 이희연 이용성 조진영 김순애 김영재 김성진 황기석 류석열 정지숙 최연익 강정덕 이상훈 원찬섭 권현옥 김필성 김시달 정유섭 호전종합건설 이춘달 제나올 주신옥 한판현 김혜숙 강효상 임영애 윤현순 유상우 허미라 오경옥 조경남 장영수 최홍래 강용진 이미경 공인배 전득곤 심은숙 김하숙 권옥순 윤복연 이상근 박종식 장원주 정미순 한선희 임영연 박미영 가솔론 맹길재 박경자 정중숙 조점이 하부영 이미애 문갑래 정창민 임화연 조성부 우영숙 한병근 정용훈 이계숙 정숙향 양미모 김인호 최연경 심영숙 왕한석 안호순 최유리 이승미 이지선 한학조 청호건설(주) 박은정 전역수 변재범 박종문 제성호 조진영 김태현 김현주 구영숙 심규나 양유경 고난조 김현석 이순복 제금자 김오수 조성규 박태순 윤현식 윤정숙 서영문 강순자 손윤기 김정재 진순옥 양채심 노주현 조형규 김갑연 이태현 김민자 정귀남 정영숙 이경순 김소연 신창환 김중선 정인숙 안호순 김양현 이윤봉 김순찬 박국원 이향래 홍정숙 이연식 홍순화 김남숙 남경남 조진영 법장사2 홍세표 김희정 이민자 황진두 이봉자 김해원 윤현순 우영숙 김갑연 김무립 우태영 최문정 김영길 이혜경 김계동 김주희 김순애 심은숙 최유리 김양현 김민중 임상보 추상근 이대희 이승진 김애숙 윤라미 김필성 가솔론 박태순

7월 최상태 황기석 조경남 황종관 최홍래 김인수 김용호 양채심 임화연 김선숙 임박순 백장홍 (주)동아기업 이숙이 이미영 김민호 원혜정 정의순 김남숙 왕한석 김승선 백상호 강갑순 오경옥 박지훈 이상근 김석연 강창순 윤원준 김순화 제성호 박현기 안미경 강옥환 호전종합건설 김말순 박종식 허광도 진순옥 정정숙 이용진 노주현 윤지희 이영숙 권종영 정중숙 류석열 이경순 김현섭 변재범 정미순 김순권 이수미2 강연옥 박정현 성명숙 이계순 김정옥 고난조 안규철 이순복 박향진 조재영 이용진 이재정 노영도 최영희 윤복연 윤석근 홍정숙 김용진 신창환 김재호 이수미2 김순권 박현숙 안웅호 강대균 이계숙 제나올 손윤기 장원주 김석순 대각다엔씨(주) 명정식 광진중 백금옥 박우찬 진재분 장시경 조점이 양미모 김현석 전부근 이영숙 동명특수강 이태호 이복기 강성진 광선자 황정숙 정숙향 박은정 윤정수 홍순화 김순점 명곡목재 박우진 김영재 정유섭 김용호 박국원 청호건설(주) 강문봉 최연경 김설영 김순화 김옥순 김선숙 김시달 구나운 구미자 정귀남 정정순 이재동 이두래 서진호 하윤숙 치마저고리 김금자 유상우 허미라 박정숙 정정자 이현숙 윤상일 최연익 강창순 김태형 이무제 불명 김하숙 권옥순 김주애 서영문 장영수 김병순 김성호 한판현 김점식 황희석 김승선 맹길재 이지선 홍은정 김보열 김옥희 윤정향 주신옥 허혜자 이희연 박종근 (유)한국산업 한병근 구영숙 김진영 남태석 이향래 하부영 문갑래 구미자 만일회 강쌍범 김만식 이승미 윤정숙 배경조 장인옥 성우근 서도순 장원주 김주애 이미경 주동강 김연완 김현주 김민자 박향진 한학조 정지숙 박귀은 이영수 박정숙 정창민 김오수 조성진 윤현식 김순찬 김순점 이영자 윤정에 강정덕 이창훈 성명숙 한선희 이영미 조필준2 이태현 김희정 이상태 민영인 김수정 전역수 윤정자 광선자 심영숙 이상백 조원익 이윤봉 이민자 김수동 배상립 이용호 김인호 최인선 홍은정 이상훈 김문기 이창식 홍세표 이혜경 차기훈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문경련 양유경 김정재 박정숙 권종영 박종문 이용성 설종열 양수미 황진두 조민주 서양순 강순자 김보열 성양원 진재분 제금자 송현도 남경남 이우중 김계동 한은주 김향숙 김연순 방이호 이연식 강갑순 이마트단체지원금 강효상 정숙자 정성종 김애숙 박재홍 이춘달 최인미 이미애 김소연 백장흠 김중선 공인배 김영환 김희정 이봉자 김재룡 이상근 정영숙 오유민 김순희 강대균 하윤숙 임영연 박우진 문상필 윤라미 김해원 김필성 심은숙 우영숙 김태현 김갑연 법장사 김민중 주경선 최문정 김영길 김순애 윤현순 가순출 최유리 박태순 김양현 김무립 우태영 임상보 추상근 이대희

8월 강옥환 한학조 이현숙 오유민 김순희 김재호 심영숙 노주현 백금옥 노영도 최유리 최상태 남태석 양유경 김민호 장연주 곡선자 제금자 왕한석 이복기 안웅호 김태현 김진영 황정숙 정지숙 방이호 성양원 김용호 양채심 제성호 김영재 박우찬 박태순 배경조 배상림 이용호 김현섭 이창훈 구미자 김순화 이수미2 김시달 강성진 김갑연 (주)동아기업 김향숙 김수정 허광도 변재범 권종영 하윤숙 이용진 유상우 정유섭 김양현 김수동 문경련 허혜자 김명순 이순복 진재분 (주)동명특수강 김영환 김화숙 구나운 법장사 한은주 이영자 강문봉 최홍래 박정숙 강대균 명정식 정인숙 맹길재 허미라 김무립 박재홍 서양순 고난조 장원주 윤정자 성명숙 조재영 (유)한국산업 한명근 권옥순 우태영 차기훈 청호건설(주) 박은정 윤정수 진순옥 박정숙 명곡목재 최은경 이승미 이지선 주경선 조민주 류석열 이재동 최연익 김설영 홍은정 김옥순 남정애 김현주 구영숙 임상보 김재룡 제낙울 윤상일 전여수 이영수 백장흠 치마저고리 공남이 윤현식 윤정숙 최문정 이상태 이춘달 이경순 김인호 김소연 강갑순 황희석 이창식 김진규 김민자 추상근 황기석 박지훈 손윤기 이미애 이연식 박향진 이무재 김영환 진상복 김순찬 김영길 정중숙 김말순 홍정숙 김용진 최인선 이충림 박종근 정숙자 이태현 김희정 이대희 오경옥 이상근 정영숙 김현식 홍순화 대각디앤씨 강상범 박우진 이윤봉 이민자 김선희 호전종합건설 윤석근 주신옥 김정재 서진호 김점식 주동강 남경남 홍세표 이혜경 왕승목 윤복연 이숙이 김연순 김보열 김인수 김태형 김문기 조성진 양수미 황진두 우영숙 민영인 김정옥 최인미 김석연 신창환 김혜숙 이상백 조원익 이우중 김애숙 박정현 이계숙 조정남 양미모 문갑래 원혜정 김혜숙 이용성 조필준2 정성종 이봉자 이효석 장시경 정숙향 황종관 안규철 김원진 이희연 이영미 정인숙 김희정 윤라미 임화연 강외순 조점미 하부영 이영자 한판현 하정자 김오수 최은경 문상필 이도일 박종문 박국원 성우근 이상근 최연경 전부근 이상훈 박진중 박현기 임막순 김순애 김순점 김보열 윤정에 윤정향 이두래 김석순 김종선 임영연 윤지희 안미경 김필성 정미순 정귀남 정정순 서도순 김성호 정의순 이미경 강효상 강연옥 최숙자 윤현순 박귀은 서영문 김옥화 박종식 강정덕 윤원준 한선희 공인배 이재정 이영숙 심은숙 장영수 정정자 이향래 이미영 강순자 정정숙 정창민 장형선 박현숙 이호길 가순출 장인옥

9월 최상태 민영인 김석순 김명순 김현식 대각디앤씨(주) 강쌍범 정숙자 진상복 허미라 김설영 강옥환 남태석 장시경 하부영 김소연 정정숙 주동강 조필준2 이태현 권옥순 서진호 김진영 황정숙 김수정 윤정향 이연식 김태형 이영미 조성진 이윤봉 박경자 한판현 배경조 문경련 조정남 서도순 김순희 김혜숙 이상백 조원익 홍세표 이지선 정의순 김주애 배상림 이용호 최연익 정미순 하정자 김오수 남경남 양수미 구영숙 윤원준 이상태 김향숙 정지숙 김민호 장연주 이희연 이용성 박우진 이우중 한명근 이미애 한은주 서양순 류석열 방이호 이영수 이상훈 광병대 김승선 정성종 이승미 문갑래 김수동 강현성 허혜자 오유민 이창훈 이미경 박진중 김금자 김희정 김현주 김성호 김재룡 장영수 김연순 허광도 성양원 한선희 박진중 박현기 문상필 윤현식 안규철 박재홍 이춘달 최인미 김현섭 최인선 정창민 강효상 윤지희 임막순 김진규 최연경 조민주 이상근 정영숙 김용진 박정숙 심영숙 공인배 강연옥 백상호 김영환 손윤기 차기훈 성우근 황종관 강창순 윤정자 박종문 임화연 이재정 안미경 박주홍 홍정숙 황기석 이향래 양유경 최홍래 김인수 제금자 노주현 박현숙 최숙자 설종열 강문봉 (주)동아기업 김옥화 이상근 윤정수 강정덕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왕한석 이효석 이영숙 공남이 윤상일 오경옥 정정순 이미영 장원주 변재범 양채심 제성호 백금옥 박정현 이재현 이재동 호전종합건설 박지훈 박종식 김보열 이순복 하윤숙 장형선 이복기 노영도 치마저고리 윤정에 정중숙 김말순 양미모 김석연 진순옥 조재영 이태호 김영재 안웅호 이무재 이충림 윤복연 이숙이 박귀은 김정재 신창환 (주)동명특수강 이창식 김시달 박우찬 황희석 정숙향 정귀남 이현숙 박은정 전여수 전부근 명정식 김승선 유상우 강성진 김문기 조점미 박국원 김정옥 고난조 김인호 주신옥 김옥순 (유)한국산업 김화숙 정유섭 박종근 청호건설(주) 서영문 윤석근 이경순 이두래 홍순화 명곡목재 김영환 맹길재 구나운 한학조 장인옥 정정자 이계숙 김보열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10월 강대균 김주에 정숙향 박종식 윤정수 이순복 대각디엔씨(주) 신종준 정병하 최유리 박현숙 확산자 호전종합건설 조점이 주신옥 장원주 변재범 김순화 치마저고리 이창식 김태현 이호석 성명숙 오경옥 청호건설(주)고난조 김현석 신창환 김태형 정해숙 정숙자 박태순 이복기 박정숙 윤복연 장시경 김인호 김석연 전부근 이희연 이무제 조성진 김갑연 김시달 구미자 이계숙 조정남 손윤기 김정재 홍순화 김혜숙 황희석 조필준 김양현 유상우 홍은정 정중숙 윤석근 방이호 김보열 김설영 하정자 김문기 조원익 한상근 김화숙 강옥환 정귀남 박지훈 전역수 안규철 정의순 김혜숙 박종근 박우진 법장사 맹길재 백장흠 서영문 김정옥 홍정숙 민영인 서진호 이마트단체지원금 강쌍범 윤정숙 김무립 한명근 강갑순 정정자 이영자 이경순 문갑래 강정덕 이상흠 주동강 김민자 우태영 이승미 권종영 박국원 성우근 이미에 최연경 한판현 이미경 이상백 김순찬 주경선 김현주 진재분 김보열 이향래 최연익 이두래 정정숙 한선희 김오수 김희정 임상보 윤현식 김용호 장인옥 김옥화 최홍래 김성호 김재호 정창민 이용성 이민자 최문정 김진규 김진영 한학조 이용호 박귀은 강창순 김용호 심영숙 박진종 이혜경 김영길 진상복 최상태 제낙울 장영수 박은정 윤정자 성명숙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영미 황진두 이대희 이태현 배경조 남태석 정정순 오유민 최인선 강대균 박종문 임영연 김계동 김선희 이윤봉 김순점 황정숙 이현숙 양미모 박정숙 확산자 제금자 강효상 김애숙 왕승목 홍세표 박향진 서양순 윤정에 김민호 장연주 구미자 김순화 공인배 이봉자 강향숙 양수미 김재호 문경련 김수정 하부영 김소연 박정숙 하윤숙 임화연 김주희 성미란 이우종 이상태 배상립 정지숙 강문봉 이연식 권종영 이용진 왕한석 윤라미 김성숙 정성종 차기훈 김말순 양유경 김현섭 성양원 진재분 김순권 제성호 김해원 권도은 김희정 조민주 이숙이 김연순 윤상일 정미순 김주에 조재영 장형선 김순애 정심아 문상필 김수동 이충립 최인미 허광도 이영수 강갑순 이수미4 이용진 김필성 최보연 임박순 박재홍 이춘달 정영숙 이재동 김인수 백장흠 (주)동명특수강 김순권 윤현순 박덕해 백상호 김재룡 이상근 황종관 김용진 김명순 박향진 명정식 노주현 심은숙 박현기 안미경 황기석 류석열 이상근 서도순 이창훈 김순희 김옥순 광병대 가순출 강연옥 최숙자 (주)동아기업 김향숙 이미영 윤정향 진순옥 홍은정 명곡목재 이태호 우영숙 이재정 이영숙 안우호 허미라 윤정숙 이혜경 이봉자 김순애 최유리 김무립 추상근 성미란 박덕해 박우찬 권옥순 김민자 이승진 김주희 김필성 박태순 우태영 김영길 김성숙 김은희 강성진 박경자 김순찬 황진두 윤라미 윤현순 김갑연 주경선 이대희 권도은 김종진 정유섭 이지선 김희정 김계동 김해원 심은숙 김양현 임상보 김선희 정심아 박정현 구나운 구영숙 이민자 김애숙 이도일 우영숙 법장사 최문정 강향숙 최보연 노영도 최임숙 하현희

11월 최상태 정정자 장영수 허광도 최인선 성명숙 조재영 이용진 맹길재 권옥순 김갑연 강옥환 장인옥 김수정 강창순 윤정자 권종영 김옥순 김순권 한명근 박경자 김양현 김진영 황정숙 이향래 강정덕 박정숙 김용호 명곡목재 이수미2 이승미 정용훈 법장사 배경조 김순점 성우근 김명순 김소연 확산자 신종준 김선숙 김현주 이지선 김무립 제낙울 김향숙 정영숙 최홍래 이연식 박정숙 신경수 김승선 김진규 구영숙 우태영 박재홍 이영자 이용호 장원주 변재범 구미자 황희석 최운경 진상복 윤정숙 임상보 김재룡 이상근 정지숙 윤정수 성양원 김주에 치마저고리 정병하 이태현 김민자 최문정 이상태 이춘달 이상근 김인호 신창환 대각디엔씨(주) 이무제 이창식 이윤봉 김순찬 김영길 차기훈 조정남 이미영 전역수 김성호 박향진 김문기 김영환 홍세표 김희정 이대희 조민주 김말순 박종식 이미에 김인수 김순점 박종근 정숙자 양수미 이민자 김선희 김수동 이숙이 하부영 김용진 정미순 강외순 강쌍범 조원익2 이우종 이혜경 강향숙 황기석 류석열 이경순 민영인 전부근 김태형 주동강 조성진 정성종 이승진 성미란 (주)동아기업 정숙향 고난조 주신옥 김설영 김혜숙 이영미 조필준 김희정 황진두 김성숙 오경옥 조점이 손윤기 김현석 홍순화 이희연 이상백 박우진 문상필 김애숙 권도은 호전종합건설 청호건설(주) 박귀은 최연경 서진호 하정자 김오수 이재현 임박순 이봉자 정심아 정중숙 장시경 양미모 김석연 구정순 이상흠 이용성 김금자 백상호 김주희 최보연 윤복연 김정옥 박은정 김보열 정의순 이미경 박진종 김승선 안미경 윤라미 박덕해 김석순 윤석근 강문봉 김계재 윤원준 한선희 노주현 박현기 최숙자 김해원 김은희 이계숙 제낙울 이재동 안규철 한판현 정창민 임영연 강연옥 이영숙 이도일 김종진 한학조 박지훈 윤상일 문갑래 정정숙 박종문 임화연 이재정 박정현 김순애 최임숙 서양순 양유경 서도순 김순희 김재호 심영숙 강효상 박현숙 노영도 김필성 하현희 서영문 이현숙 윤정향 이두래 이충립 제금자 공인배 이호석 안우호 윤현숙 박태순 정귀남 김옥화 방이호 이영수 홍은정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왕한석 백금옥 박우찬 심은숙 허미라 배상립 황종관 최연익 장연주 백장흠 양채식 제성호 이복기 강성진 가순출 김화숙 문경련 김연순 김민호 이순복 강갑순 김순화 정해숙 김시달 정유섭 우영숙 광병대 박국원 정정순 오유민 진순옥 강대균 동명특수강 장형선 유상우 구나운 최유리 명정식 김보열 최인미 김현섭 이창훈 진재분 윤정에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일반후원금명단

12월 최상태 박국원 박치훈 양미모 김명순 이순복 박정숙 정창민 주동강 조형규 윤지희 이계순 김보열 김말순 박은정 윤정수
진순옥 강대균 박종문 김오수 조건영 이재정 강옥환 장인옥 김옥화 고난조 장원주 최인선 구미자 심영숙 이상백 김만식 박현숙
김진영 한학조 윤석근 강문봉 최홍래 변재범 홍은정 제금자 이영미 남경남 이효석 배경조 서양순 정숙향 이재동 강영옥 김순희
강갑순 이상흠 이용성 최순희 백금옥 이상태 황정숙 조점이 윤상일 전역수 윤정자 백장흠 양재심 박진종 김진숙 이복기 김재룡
문경련 청호건설(주) 정종동 김석연 박정숙 권종영 하윤숙 강효상 김영환 김영재 차기훈 배상립 윤정에 정원진 김인호 성양원
진재분 김순화 공인배 이병철 김시달 조민주 김향숙 이용호 장시경 김보열 장연주 김용호 이영숙 임화연 서진호 유상우 박재홍
이계순 김수정 김석순 이두래 신창환 대각다앤씨(주) 조제영 왕한석 정숙자 김화숙 김수동 이영자 정지숙 박종식 김정재 김인수
김석순 동명특수강 제성호 하상개 맹길재 황기석 류석열 양유경 하부영 이미애 이창훈 김태성 명정식 임영연 김금자 한명근
(주)동아기업 이충립 최인미 서도순 최연경 전부근 김태성 김옥순 장형선 정병하 이승미 호전종합건설 제낙울 정영숙 주신옥 김성호
김설영 박향진 명곡목재 광병대 전판식 김현주 오경옥 김정옥 김연순 윤정향 안규철 홍순화 김순점 정해숙 이용진 조건영 진상복
최상숙 이춘달 황종관 박귀은 강창순 서진호 김재호 신종준 김순권 안호순 박현기 정중숙 이항래 이상근 김민호 강정덕 정의순
박옥림 신경수 이수미2 박미영 박미영 윤복연 성우근 이미영 최은익 문갑래 한판현 김태형 치마치고리 김혜선 조형규 강쌍범
홍정숙 이상근 장영수 방이호 김현석 허혜자 하정자 이무제 최운경 박우진 한선희 정정자 조정남 허혜자 오유민 김소연 정정숙
이희연 황희석 이창식 정인숙 김주애 이계숙 이숙이 손윤기 허광도 이연식 박선자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김문기 한복남 이태호
정미순 정귀남 정정순 이경순 김현섭 이영수 성명숙 이미경 박종근 안호순 공남이 김용진 서영문 이현숙 홍정숙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결연후원금내역

강옥환: 김인왕, 김인제제, 김인사후, 오슬기,

석준영

강승규: 김백천

강옥자: 박정민

강성갈: 박지우

김형수: 김 신

김홍구: 박정민, 서희원(퇴소)

김수화: 최민서

김경마: 이정현, 신영미

김인순: 박경주

김양안: 정진미

김외장: 박민승, 박유영, 신경이

김문래: 석동인

김봉환: 김동천

김주열: 김영천

김영숙: 유승영

김숙장: 박경주

권효삼: 이택겸, 이청란

권현자: 최민서

공우상: 김동천

곽진화: 장운영

구나운: 이대웅

남정우: 오슬기

노동환: 양진우

노유란: 최민서

도선중: 임정재, 한승민

류소영: 이종섭

박명연: 박정하, 박순자: 박지우, 박사훈

박명주: 김효립

박연옥: 김동천

박민사: 유관중, 이정현

박국완: 이동훈(퇴소)

박정만: 박민승

박순자: 박사훈, 박지우

성순남: 박사훈, 김 신, 김철영

성철경: 박정민

서정환: 박의렬, 박경주

서부춘: 박의렬

석병갈: 석동인

손진일: 박지우

손진우: 신영주

송준영: 임정재

신증섭: 장운영

신태한: 신민규

안성호: 박지원

안정애: 이은미

양순자: 김백천, 김영천

유화진: 김철영

옥영준: 전주영

원종운: 한승민

염선면: 석동인

윤다혜: 유관중

이동근: 백인석(퇴소)

이정화: 김철영

이화옥: 김 신, 김철영, 신영주

이희옥: 배희승

이관용: 임정재

이주희: 김희태

이숙진: 안덕현

이선재: 황경선

장원석: 석원진

장현진: 박지환, 전주영

정유섭: 황재균

조규열: 신영주

하정숙: 정다운, 신민규, 김효립, 박유영

하우순: 박의렬, 김영천

하린영: 박지환

하충훈: 박지우

황경수: 신민규

황희영: 유승민

후원금(익명): 박의렬

현대자동차: 신민규

신아정밀(주): 김성환

공동모금회: 김광석, 김원영, 이정현,
김형택, 이수현

어린이재단: 석동인, 박사훈, 이수현,
한승민, 김동천, 황재균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금

1월

정영숙(신진보건소), 최은경, 박효주, 문병식, 함안무학사(박영재), 성산로타리클럽, 불명, 김정란, 무주사(삼휴스님), 강숙이, 손금옥, 김정란, 틈새사랑, 하이마트(상남), 윤덕점, 정명숙, 박종근, 한독약국(문산), 동명한의원, 달마선원, 마산적십자회, 경남은행, 박승재연고자, 작은사랑, 이옥자, 과수사랑회, 박종근, 법우회(두산중공업),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소방서, 개천면사무소, 고성군의회, 삼성카드, 은덕암(고성), 최상숙·이우중, 윤정남, 최보연, 고성군청, 제로투세븐, 성심병원, 최명희·염용하, 김옥재(삼성화재), 전국한우협회(농업기술센터), 생활선원, 김상진, 서성춘, 황석출, 최관경

2월

만월사, 비앙카레스토랑, 옥천사주지스님, 신우회, 보리수회, 신우회, 부산선광사, 푸드뱅크, 통영연화사, 강숙이, 손금옥, 동명한의원, 한독약국(문산), 명주형연고자, 윤덕점외, (주)청운산업, 최관경, 우산반점(고성), 소원성취사, 이현지, 강설인, 전성애외1명, 이옥자, 정지호(소원성취사), 김명자, 김갑연, 함안무학사(박영재), 최규철, 윤정남, 박연옥, 더큰병원, 보련회, 김두선, 최관경

3월

고성경찰서, 김해조, 정명숙, 경남통영말기, 새고성농협(파근영), 다모아신발점(배둔), 한독약국(문산), 배석만, 영천중학교, 강숙이, 손금옥, 푸드뱅크, 보리수회(창원), 작은사랑회, 윤덕점, 동명한의원, 모충사(사천), 정토만일회, 개천면사무소, 개천면 삼계단체, 고성군청(주민생활과), 백준호, 아리따움(문산점), 삼성카드, 봉림사관음회(창원), 더큰병원, 전성애외1명, 문병식, 함안무학사(박영재), 노벨서점, 조영숙(파머스마켓), 경남은행(고성점), 창원문성대학(왕정희), 보련회, (사)한국피부미용협회, 박정은(경남은행), 우산반점(고성), 청년암, 베스킨라빈스(핑크카), 최관경

4월

이정화, 신우회, 조영숙, 한독약국(문산), 배석만, 강숙이, 손금옥, 푸드뱅크, 동명한의원, 청년암, 윤덕점외, 명주형고모님, 보리수회(창원), 김봉근(장수한의원), 전성애외1명, 문영수, 문은순, 함안무학사(박영재), 삼성카드, 정명숙, 윤정남, 더큰병원, 보련회, 김지인, 최혜란, 영천중학교, 박영희(대구), 우산반점(고성), 강설인, 환경부, 영가구마트(통영), 김광석(최선생님), 박상옥(부산용화사), 부산용화사, 노벨서점, 최관경

5월

동명한의원, 김혜숙, 강숙이, 손금옥, 최을림, 법우회(두산중공업), 김지인, 보리수회(창원), 김경선, 백종진(마산), 박영희(대구), 한독약국(문산), 푸드뱅크, 최은경, 신태한(일신스님), 더큰병원, 이영빈, 이상남연고자, 삼성카드, 경남아동연합회, 우산반점(고성), 최근철, 최상숙, 이우중, 전성애외1명, 김은정, 문병식, 최명희, 염용하, 정토만일회, 조영숙(파머스마켓), 백순이, 윤상일, 박국원, 보련회, 옥천사주지스님, 최관경

6월

동명한의원, 김정숙(아이존빌), 보리수회(창원), 적벽돌(배둔), 김일정, 푸드뱅크, 임돌아, 청년암, 성운선(성윤강), 틈새사랑, 한독약국, 박영희(대구), 윤덕점외, 장미로타리(창원), 진주안경원(양정훈), 강숙이, 손금옥, 삼정초등학교, 내이름은소녀(가방회사), 윤정남, 강송훈, 이옥자, 전성애외1명, 삼성카드, 불명, 백종진(마산), 김민주(김해주, 김우석), 백순이, 이정화, 강설인, 봉림사관음회(창원), 김부순(반야심), 보련회, 우산반점(고성), 김혜숙, 최관경

7월

삼별회, 최근철, 보리수회(창원), 푸드뱅크, 백순이, 경남아동연합회, 한독약국(문산), 조영숙(파머스마켓), 이성구, 정지윤, 동명한의원, 이정화, 윤덕점외, 강숙이, 손금옥, 백수명(백순옥), 권인숙(농산물30번), 강설인, 진주농산물26번, 홍용표, 전성애외1명, 삼성카드, 좌이어드신, 우산반점(고성), 고성영현면(의명), 정명환, 보련회, 이옥자, 한국전력(고성지점), 김은정, 정혜원, 박영희(대구), 정혜원, 더큰병원, 부산적십자회관, 문병식, 최관경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물품후원금

8월

신여중학교, 강진규, 강숙이, 정유진, 손금옥, 정정배, 정영훈연고자, 김은정, 최상숙, 이우중, 동명한의원, 정의순, 푸드뱅크, 김영기, 틈새사랑, 윤덕점외, 강경숙, 전은옥, 경남아동연합회, 박영희(대구), 범우회(두산중공업), 김혜선, 강설인, 전성애외1명, 조영숙(파머스마켓), 함안무학사(박영제), 영농식육점(사천), 윤정남, 더큰병원, 작은사랑회, 보련회, 강송훈, 한독약국(문산), 보리수회(창원), 최관경

9월

강송훈, 문병식,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 보리수회(창원), 범우회, 동명한의원, 진주안경원(양정훈), 정유진, 강숙이, 강진규, 손금옥, 이정화, 한독약국(문산), 강설인, 김갑연, 박영희(대구), 더큰병원, 전성애외1명, 함안무학사(박영제), 조영숙(파머스마켓), 농산물품질관리원, 삼성카드, 개천새마을협의회, 고성소방서, 경남도교육청, 개천면체육회, 최명희, 염용하, 범우회(두산중공업), 최상숙, 이우중, 창원문성대학, 보련회, (사)한국피부미용협회, 이은주(창원), 경남도청(도시계획과), 고성군청, 고성성심병원, KT고성지점, 고성군의회, 창원교도소, 외환은행(진주), 경남도청(친환경건축과), 성동조선,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성선로타리클럽, 최을림, 생활선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정화, 허종주(장애인회장), 최관경

10월

김상진, 동고성농협, 박기선, 동명한의원, 박효주, 신우회, 한독약국, 경남교육청교육감, 보리수회(창원), 태삼마트(영오), 강숙이, 푸드뱅크, 강진규, 정유진, 손금옥, 작은사랑회, 더큰병원, 문병식, 영농식육점(사천), 영천중학부모회, 삼성카드, 최관경, 연화의원, 전성애외1명, 윤정남, 함안무학사(박영제), 이옥자, 고성가족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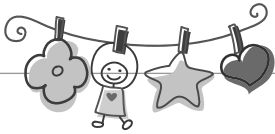
11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동명한의원, 박명대(인천), 문병식, 보리수회(창원), 최근철, 황경선지인, 강숙이, 손금옥, 강송훈, 하창식, 무주사(삼휴스님), 진주(익명), 윤덕점외, 하정숙, 한독약국(문산), 더큰병원, 한희명화(진주), 도봉주, 이옥자, 전성애외1명, 영농식육점(사천), 이영빈, 박영희(대구), 함안무학사(학봉스님), 태삼마트(영오), 최규원(부산), 함안무학사(박영제), 조영숙(파머스마켓), 공춘익, 강송훈, 송병욱, 백순이, 강설인, 스님(익명), 천사의집(백선경), 예달(주), 우산반점(고성), 삼성카드, 백승욱, 강보용, 정순규, 최관경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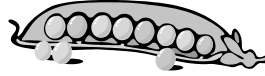
보리수회(창원), 고성소방서, 송병욱, 이정화, 고성아이비클럽(김성유), 다솜회, 푸드뱅크, 백옥란, 동명한의원, 윤덕점외, 이한경, 김동우, 김민정(창원), 노벨서점, 한독약국(문산), 대한지적공사, 윤미행, 고성농업기술센터, 백순이, 강설인, 손금옥, 불여사, 범우회(두산중공업), 이재현, 김철영지인, 신문사주지스님, 전성애외1명, 여락원(창원), 좌연회관, 동고성농협, 함안무학사(박영제), 범우회(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고성지점), 하정숙, 최명희, 염용하, 불여사, 조영숙(파머스마켓), 김정란, 윤정남, 보련회, 최을림, 정영숙(신진보건소), 강경숙, 윤상일, 박상범, 이은숙, 내서로타리클럽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C카드 포인트, KB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자신이 보유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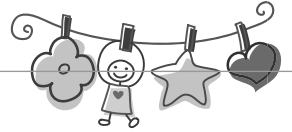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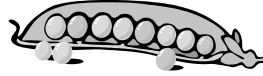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무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 지정번호(진주:239, 마산: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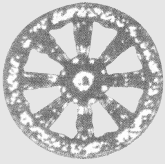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 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고 잊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 분기 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마음 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회장 강미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 (055) 672-0078 팩스 : (055) 672-1308

정토만일봉사회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장 변점용

창원시 소담동 105-1 송백해피빌 202호

휴대전화 : 011-871-3033



한마음치과 원장 안중언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62 ☎055-762-2875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충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보 대표 박문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산빌딩 2층 ☎674-7933
권현옥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1 경남은행2층 ☎743-7567	이일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주)두산중공업 큰사랑회·법우회 봉사단체	국제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선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진주동방치과 경남 진주시 대안동 12-10번지 ☎055-747-5500	the큰병원 원장 김경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0(명서동) ☎055-2700-800	개천초등학교 교장 최상태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옥천로 1268 ☎055-672-0010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마하어린이재단 마하어린이도서관 관 장 성 공 스 님 경남 진주시 초전동 1345-1 ☎055-753-9922	사회복지법인 해인사자비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장 문 병 하 경남 진주시 동진로 273(상대동) ☎055-763-6677
대한불교조계종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원 장 법 광 스 님 경남 남해군 고현면 화방로 211번길 81-35 ☎055-863-2286	사회복지법인 보현행원 노인전문요양원 원 장 최 분 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3 ☎055-329-1733
내원정사 반야원 원 장 안 희 관 경남 거제시 동부면 울포로 555-20 ☎055-632-1854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복지관 관 장 곽 인 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4-3 ☎055-221-8445
창원 성주사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 원 정 스 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5-1 하이페르상가 14층 ☎055-266-8155	창원 자비사 자비공양의 집 명 종 스 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1 ☎055-285-2181
사회복지법인 연꽃 연꽃노인요양원 일 여 스 님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83-17 ☎055-964-5577	사회복지법인 능원복지재단 효능원 전문요양원 정 흥 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8 ☎055-342-4443
사회복지법인 만월 만월노인요양원 여 진 스 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산길 212 ☎055-648-1186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박 기 련 경남 거제시 양정1길 45 ☎055-636-0303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 원 장 석 봉 국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17 ☎055-381-200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거창군 삶의쉼터 은 산 스 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 ☎055-945-2014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국제 로타리3590지구 진주축석 로타리클럽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13 ☎055-749-2468	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518 E-mail : gcdj@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	(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
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	학우문구센타(창원점) 대표 노 동 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터 ☎016-551-6024
무 학 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50 ☎583-2113	부산 이옥자님 미용봉사단체 회원일동	동그라미회 총무 김 중 원 ☎011-9503-0755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일동	천사미용봉사단 회원일동
(주) 세창악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	보련회 (영양사모임) 중식봉사단체 회원일동	변호사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
제중당한의원 한의사 이 병 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8-9번지 ☎055-672-3689	동 명 한 의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	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표 강 숙 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
자동차/화재/자금대출/적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접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8(구 나포리예식장3층) ☎747-8474, 8475	이엠코리아(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98-3번지 ☎055-582-6221	 황토떡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황토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
운 흥 사 종목스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외룡리 442 ☎055-835-8656	반 성 주 유 소 하 창 식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477번지 ☎758-8817, 016-586-8817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중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
문 수 암 법광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번지 ☎672-8078	KEB  진주외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	장수한의원 (구)장수당건강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왕리산1-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납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원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2 ☎262-02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운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1동 산8-32번지 ☎051-302-5657	(주)한성기계 이사 우동철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산업로 79번길 ☎055-755-7722
남정기업 대표 민 송 식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차리 157 ☎055-672-4703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최 창 우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018-560-5515	칠 불 사 통광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월리 1605 ☎883-1869	고성 우산반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6번지 ☎055-672-8833
화 방 사 법광스님 경남 고령군 대곡리 144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여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33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 표 하 성 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신우회 특식 봉사회원 일동 ☎010-7440-7900	마산가고파로타리클럽 총무 최 정 호 ☎010-3778-8955	부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진주안경원 부산정보대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대표 양정훈 ☎055-753-9555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 장 함 기 호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나눔의 향기 회장 조용호님의 회원일동
과수사랑회 교육봉사단체 회장 오원숙님의 회원일동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숯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의리 389(시정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 장 정 창 민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립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현동 수월리 216 ☎636-8634	모 충 사 백산스님 경남 사천시 송포동 산140 ☎055-834-3450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25-543 17동(반송빌라) ☎051532-6563
미 립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연 공 방 대표 최 은 경 ☎010-8542-5936	창원 삼성카드 총무 허재현님의 봉사회원 일동 ☎010-2535-5680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일동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호전종합건설 토목시설물 건설업 대 표 류 주 열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973-5 ☎055-674-0294/010-9512-4717	강 원 물 류 대 표 노 주 현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12년도 결산서				2013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사무비	2,999,470	재산수입	1,200,000	사무비	24,000,000
후원금수입	131,542,024	재산조성비	21,877,200	후원금수입	77,500,000	재산조성비	125,000,000
		사업비	58,781,830	이월금	230,000,000	사업비	77,500,000
이월금	372,897,427	시설전출금	190,000,000	예금이자수입	3,200,000	시설전출금	72,661,700
예금이자	9,455,765	잡지출	2,460	잡수입		잡지출	2,738,300
		차년도이월금	240,234,256			예비비	20,000,000
계	513,895,216	계	513,895,216	계	311,900,000	계	321,900,000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12년도 결산서				2013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1,501,038,360	사무비	844,983,940	보조금수입	1,184,570,760	사무비	936,851,590
후원금수입	98,645,534	재산조성비	90,865,790	후원금수입	75,000,000	재산조성비	809,385,600
법인전입금	190,000,000	사업비	133,280,550	법인전입금	72,661,700	사업비	122,556,770
이월금	43,314,520	교육비	66,787,180	이월금	668,797,230	교육비	100,305,730
예금이자	298,729	프로그램사업	20,373,260	예금이자	100,000	프로그램사업	45,850,000
잡수입	9,066,080	잡지출	1,992,770	잡수입	16,920,000	잡지출	2,100,000
		부채상환금	30,718			예비비	1,000,000
		차년도이월금	684,049,015				
계	1,842,363,223	계	1,842,363,223	계	2,018,049,690	계	2,018,049,690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후원계좌	농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옥환(정토만일회)
	우체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시설후원계좌	농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우체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옥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 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록연꽃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승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허민영 · 이현설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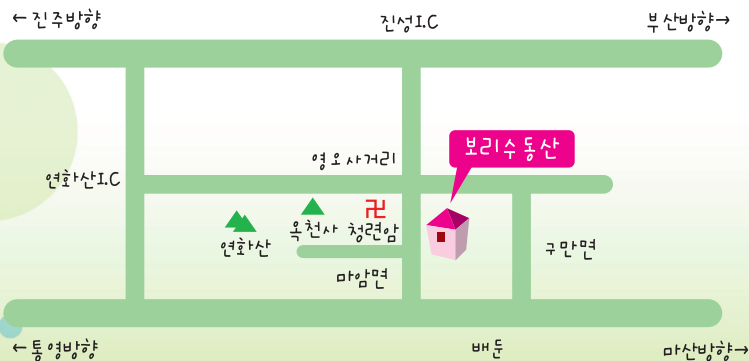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 | | |
|-----------|-----------|------------|
| 1.중풍예방클리닉 | 2.여성클리닉 | 3.과민성대장클리닉 |
| 4.회복클리닉 | 5.만성피로클리닉 | 6.척추관절클리닉 |
| 7.한방피부클리닉 | 8.간해독클리닉 | 9.간질클리닉 |
| 10.알러지클리닉 | 11.수험생클리닉 | 12.스트레스클리닉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뒤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만일회

638-982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633-1번지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